온빙울

경북교육 WEBZINE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Vol.08
2024 겨울호

경상북도교육청

온방울

경북교육 WEBZINE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Vol.08
2024 겨울호

경상북도교육청

온방울

경북교육 WEBZINE

온방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교육관련 주제 잡지로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방울들이 모여 새로움을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경북교육의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따뜻한 경북교육을 이루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6

Part 1. 기획 Special theme

0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대안 - 김은비** 협성대학교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교수

02.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 서은비** 인구미래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22

Part 2. 진단 In Education

01.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로 보는 경북교육의 방향 - 장계영**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장

02. **작은학교,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 - 서윤정**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03. **지역을 바꾸는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발전특구 - 홍상준**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04. **음악중점학교, 지역과 함께 예술 꽃을 피우다 - 안희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05.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미래과학자의 꿈 - 한수용**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06. **지역을 살리는 교과 중점 중학교 - 정혜경**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7.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경북온라인학교 - 손기화**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8.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캠퍼스, 경북형 통합운영학교 - 채수진**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장학사
09. **농산어촌과 도시, 배움을 잇다,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이윤성**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10. **세계와 연결된 중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시작,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 김미정**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11.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 김희정**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12. **작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강원 농어촌유학 - 최진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Part 3. 함께하는 현장 68 Community

01. **K-EDU 경북교육 2025**
    - **현장 취재 - 명수향**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미래교육학부모 모니터단
    - **현장 설문 - 박지현**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주무관
02. **나는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꾼다, 작은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 이지호** 월항초등학교 4학년
03.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다시 돌아올 봄날을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김홍철** 길안초등학교 교사
    -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손연희** 강남초등학교 교사
04. **해외 우수 유학생**
    -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 Enkhbayar Temuulen (테물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1학년
    - **해외 우수 유학생 멘토를 하며 - 최영진**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2학년
    - **테물엔 아빠의 편지 - Enkhbayar Yandag**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학부모
05. **화면 너머의 배움, 그 가능성을 보다; 경북온라인학교에서의 1년 - 이다겸** (가칭)경북온라인학교 교사
06. **늘 봄 햇살같이 따뜻한 학교 - 이남숙** 조마초등학교 학부모
07. **음악중점학교**
    - **음표를 그리다 - 김은준** 광평중학교 3학년
    - **비올라에 빠져들다 - 안시연** 광평중학교 2학년

Part 4. 연구 128 Academic

01. **정책연구: 해외유학생 유입과 정착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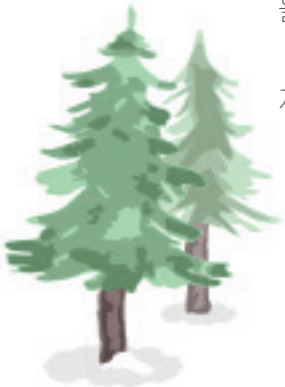
Part 1

경북에서 태어난다, 아이들이

'2023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10년 간 초등학생은 18만명, 중학생은 48만명, 고등학생은 57만명이 줄었다. 이런 감소세라면 현재 714만명인 학령인구는 2030년에는 500만명, 2060년에는 35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능응시생은 10년 사이 62만명에서 44만명으로 감소하고, 대학 입학정원인 51만명을 한참 밑돌아 학문의 상아탑이었던 각 대학은 존폐의 기로에서 학생유치에 한창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여파는 단순히 유·초·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종국에는 사회 전반과 산업구조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는 곧 저출생을 의미하며, 저출생에는 단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겨 있다.

Part 1 에서는 학령인구 변화 추이, 그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 그리고 인구교육까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이 해야하는 역할과 그 방법을 다뤄본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잊지 말자.



지금도 매 초 어디선가 태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Part

01

기획

Special theme

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대안

②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01 교육의 변화와 대안

협성대학교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교수 **김 은 비**

들어가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와 연관된 미래 사회 모습을 그리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2060년 예상치인 1.40명(통계청, 2022)에 이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Joan C. Wiliams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교육방송(EBS)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치를 듣고는 "Wow, Korea is so screwed"라며 놀라며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2023년 12월 NYT의 칼럼니스트 Ross Douthat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세계적 이슈가 된 한국의 출산률은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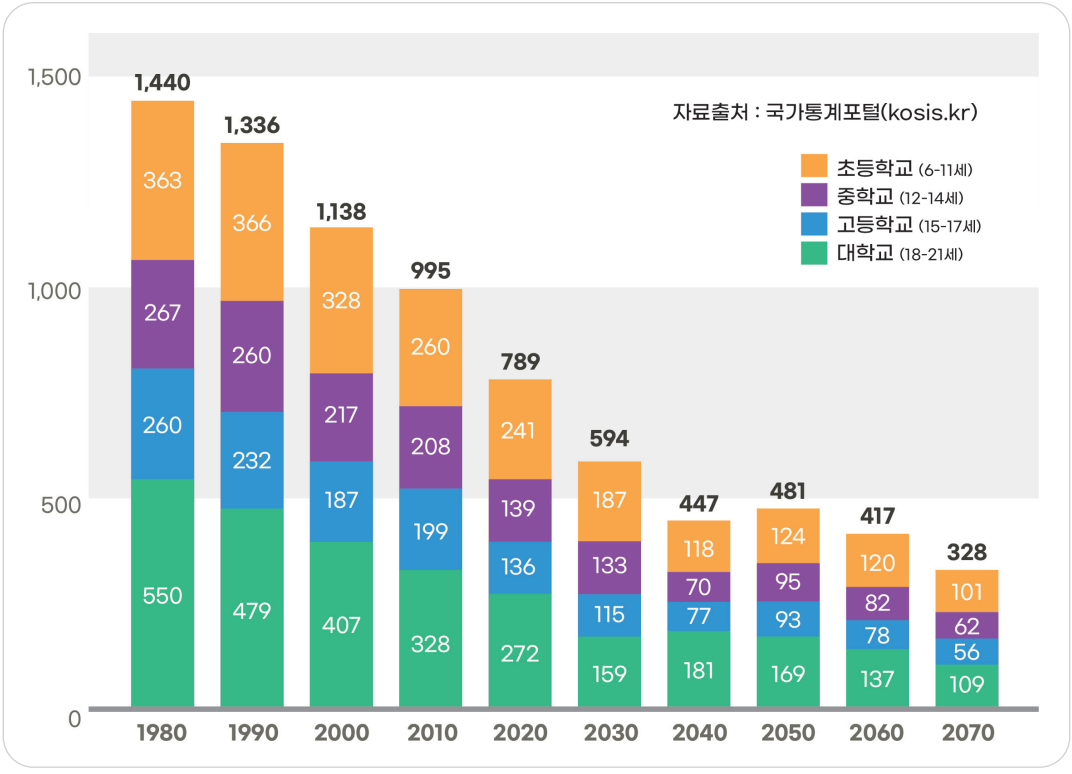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인구변화의 흐름을 미리 살피면서 미래를 대비하며 이에 맞는 사회구조를 대비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조대연, 2022).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리의 교육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저출산이 교육에 가져 올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교원수급과 교육시설 등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학령인구 변화의 추이”

학령인구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하며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세-21세까지를 나타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6~11세는 2030년 159만명으로 2020년 대비 58.4%, 중학교 학령인구 12~14세는 2030년 115만명으로 2017년 대비 84.4%, 고등학교 학령인구 15~17세는 2030년 133만명으로 2020년 대비 95.3%, 대학교 학령인구 18~21세는 2030년 187만명으로 2020년 대비 77.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10년간 이 중 195만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하여 낮아지면서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고, 2030년 학령인구는 5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2060년에는 3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인구 추계를 본다면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규모의 축소, 교원의 수급문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학교폐지 등 우리의 미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김은비 외, 2019).

학령인구 변화와 우리 **교육의 방향**

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하였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 입시제도의 다양화, 융복합 학습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김은비 외, 2021). 이는 기존의 교육이 Top down 방식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학습을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융합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는 교수자에 의한 "teaching" 이 아닌 "less teaching, more learning"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조대연, 2022).

다음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래 학교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면, '학교 공간의 복합화', '평생교육기관', '교육복지기관' 등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지금의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경제적이지 않다(박대권 , 2018). 보다 합리적으로 학교를 통해 지역에 있는 성인, 학교 밖 청소년, 학생, 노인 등 모든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평생 교육기관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김은비 외, 2019).

두 번째로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전문가로서 교육 혁신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이다. 이에 학습주체자로서 교원의 자기 계발, 미래기술정보 공유 및 생성을 위한 학습공동체 마련 및 학습공동체 리더 육성, 교원 역량 진단시스템 개발, 교수학습센터, 교원 연수 등의 체계적 지원,에듀테크를 활용한 연수기법 운영, 교사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김은비 외, 2020).

셋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에서 교사의 초점 변화,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수업) 개발 활성,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 ICT(VR, IoT, 3D 프린트)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팀티칭과 협동 학습의 활성화,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함양, 교사의 학생 평가의 다양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ICT, 디지털, 인공지능과 같은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교육의 핵심은 학생과 교사가 컴퓨터와 같은 기기나 프로그램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교육과 개별화 교육에 그 핵심이 있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학교의 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를 장학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능에 더해 지역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하며,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오며

저출산 고령화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과 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료계만 하더라도 과거 소아과, 산부인과 등 실제적인 필요로 인해 많이 몰리고 집중되었던 진료과가 현재는 폐업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속출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화 관련 진료나 의료부분은 시장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

게 인구주조의 변화에 따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교육체제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따르는 변화와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기존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가 올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해야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교원양성과정 개편, 교원자격체제 개편, 교원자격증 개편, 통합학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물리적 혹은 기능적 개편으로 볼 수 있다(류광모, 2021). VUCA* 시대로 지칭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교육은 미래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과학적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발전이 지속되는 시대, 변동성(vari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약어이다.

참고 문헌

김은비, 유성창, 박기범, 백영선, 박선민, & 조대연. (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초등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역량개발학습연구, 14(3), 193-221.

김은비, 정홍인, 김대영, 변기용, 임철헌, 최지수, & 조대연. (2020). 미래인재양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교육문화연구, 26(6), 5-27.

류광모. (2021).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경영정보시스템적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2), 5-28.

박대권. (2018).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수 정책. 교육비평, (42), 58-91.

조대연(2022). 미래교육에센스. 박영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02 학교 인구교육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서 은 비**

“인구교육이 뭐예요?”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전 사회적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교육을 추진해 온 게 벌써 8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도대체 인구교육이 뭐예요?”이다. 거기에 “저출산(생)이 문제이니 아이 낳으라는 교육인가요?”라는 질문도 패키지처럼 따라오곤 한다.

[참고]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어쩌면 ‘인구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첫인상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처럼 생각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 인구에 관한 교육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등 1960년대 산아제한 정책에서 1980년대 성비균형 정

책을 거쳐 현재의 출산장려 정책까지, 그 내용과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 사실 '인구교육'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한 것이다.
이렇듯 늘 변화하는 인구처럼 현재의 '인구교육'은 단순히 저출산(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의 변화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인구교육의 핵심이다.**

"경상북도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인구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

'보건복지부-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인구문제를 몸소 느끼고 있다. 이에 인구교육을 향한 전국 학교와 지자체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가 있을 정도로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지역이기에 인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부-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상북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확산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학교 인구교육 교과목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지역특화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구교육 우수모델>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인구교육에서
만난 경상북도
학생들을 통해 본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

경북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인구교육*은 '건강한 가족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강사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베스트셀러 그림책 「넘어」, 「달빛춤」을 써낸 김지연 작가가 참여했다. 구미 출신인 김지연 작가는 교육을 통해 만난 아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작품을 함께 읽고 그 안에서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토론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가족을 그리며 건강한 가족 가치관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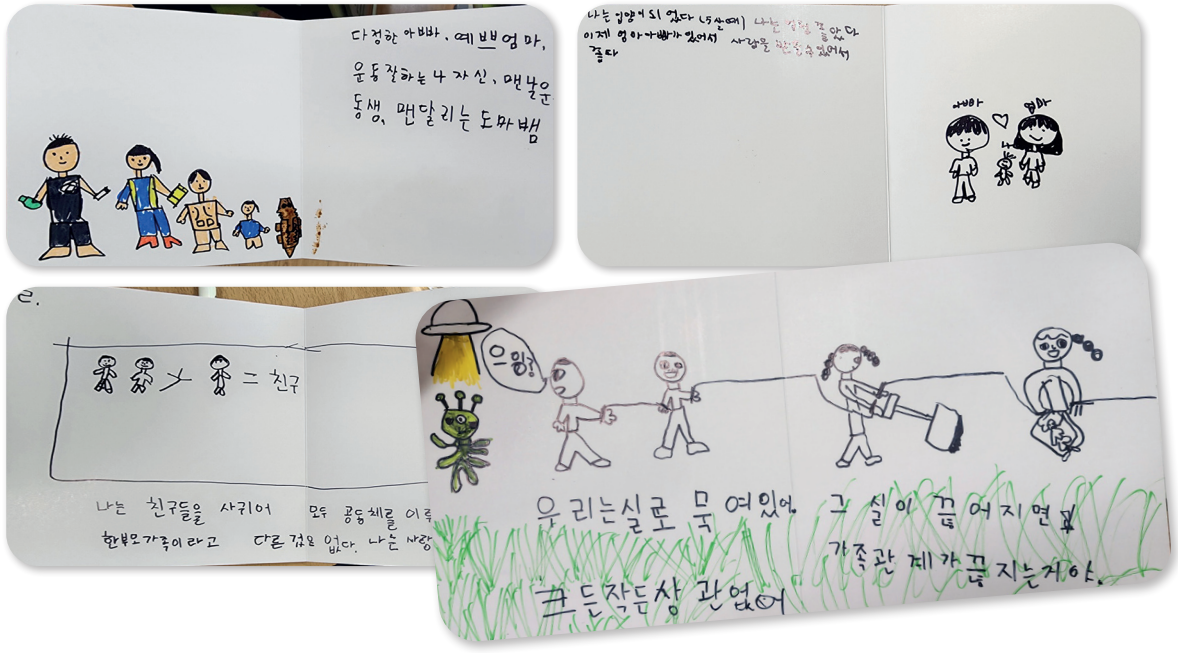
*참여형 인구교육 : 교육대상이 직접 참여하여 인구현상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상상하며 기획하는 인구교육

**특강형 인구교육 : 인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인구-사회변화 등 파급 효과에 대한 인구교육 특강

교육에 참여한 다수의 어린이는 자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그 사랑이 있어 행복하고, 어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입양가정의 아이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었고, 할머니와 둘이 사는 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는 학교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 행복의 원천이며 사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아이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이들에게는 가족은 그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한 인구교육은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 항목은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 지역에 대한 이해,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인권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찾도록 한다. 그렇다면 어린이 인구교육의 방향성은 건강한 가족가치관, 이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u>경북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참여형 인구교육</u>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기획'을 중심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이해', '인구변화와 경북의 미래', '인구변화와 나의 진로' 등의 소주제로 보드게임을 진행하며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큰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던 반면, 인구감소 지역의 학생들은 학기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와 도시로 전학을 가는 친구들을 보며 허탈감을 느끼고, 여건상 도시로 갈 수 없는 본인의 환경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로 떠나는 친구들도 마냥 좋아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도 스터디카페가 없어요.”, “웹툰을 배우려면 대구에는 나가야 해요.” 청년인구 유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학생 스스로가 인구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향으로 인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와미래정책 연구원이 인구교과서에 담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

출생, 이동, 사망.

이 세 가지가 인구변동의 핵심 요소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움직이고 사망할 때까지 사회와 주고받는 모든 상호작용을 ‘인구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교과의 개념에 적용하면, 인구는 특정 전공과목이 아닌 <범교과>분야일 것이다.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체계적인 <학교 인구교육> 추진을 위해, 외부특강 형식의 인구수업 지원뿐만 아니라 교과목 개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고등학교 인구교과서 「인구와미래」는 교육청 인정교과서로 승인되며 신설된 고시외과목에 적용되었다. 올해 중학교 인구교과서 「미래를 여는 인구이야기」는 오는 1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인구교과서 또한 내후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의 인구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구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인구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과 연계하여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역량 함양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마련했는데, 성취기준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 두 가지 이상의 내용 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식·이해'는 인구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인구통계 자료 분석, 인구 현상으로 인한 사회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했으며 '과정·기능'은 인구 현상과 인구로 인한 사회 변화 양상을 탐구하고, 인구 관련 문제나 쟁점을 분석하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가치·태도'는 인구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구성하였다.

> 나중에 다시
> 영주로 돌아올
> 아이들입니다.
> 좋은 말씀
> 많이 해주세요.

인구교육을 위해 영주역에서 학교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다시 영주로 돌아올 아이들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떠밀리듯 살지 않도록,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교육, 그것이 경상북도 학교 인구교육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중·고등학교 인구교과서의 내용체계

핵심 아이디어

-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 인구변동으로 달라진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나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의 요인과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인구 학습의 기반이 된다.
-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인구 변동을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인구통계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인구통계의 활용 방안을 일상에서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 인구전략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인구와 나의 삶	● 인구와 인구학 ● 인구 현상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인구변동에 따른 가족의 변화 ● 인구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 ● 생애주기별 삶의 모습 ●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 가치관
	인구의 지리학적 변화	● 인구분포의 요인과 사례 ● 인구구조의 개념과 사례 ● 인구주택총조사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구통계 수집 ● 다양한 주체의 인구통계 활용 사례 ● 인구이동의 요인과 사례 ● 인구변동의 요인과 사례
	인구와 사회 변화, 그리고 인구전략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생활의 변화 ●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 인구의 지역별 균형 분포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전략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모습의 변화 ●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문제 ●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전략
	인구로 상상하는 미래와 공존	● 인구로 보는 사회의 다양성 ● 다양한 가족, 세대, 사회, 지구촌의 공존 ● 인구를 통해 예측하는 미래와 나의 삶의 방향 ● 인구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습 ● 인구 현상에 따른 사회의 변화, 위기, 기회
과정·기능		●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구 관점 제안하기 ●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애주기 곡선 그리기 ● 인구변동으로 변화된 가족의 모습과 형태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족 상상하기 ● 나와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한 소통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 ●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을 바탕으로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 탐색하기 ●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인구변동을 파악하고 인구피라미드 제작하기 ● 인구통계 수집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인구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 양상과 특징을 조사하기 ●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구전략 탐구하기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전략 모색하기
가치·태도		● 인구 현상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 존중의 태도 ●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가치관 탐색 ● 세대, 성별, 문화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구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 의식 ●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 현상에 대한 관심 ● 인구구조와 인구변동을 통한 미래에 대한 흥미 ● 인구통계를 일상에서 활용해 보는 실천적 태도 ●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 ● 인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 ● 인구변동에 대처하여 미래를 구상해 보는 능동적 태도

Part 2

경북에서 키운다, 아이들을

가파르게 깎아지르는 인구절벽은 모든 지역에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야속하게도 깊숙한 산촌, 인적이 드문 농촌, 한적한 어촌에 더 매섭게 몰아닥친다.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30곳으로, 경북은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24.3.). 이는 학령인구 감소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나 그 경중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북의 현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경북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Part 2에서는 경북의 데이터로 경북교육을 들여다보고, 10년 후의 경북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백 마디 말보다는 정책으로 담아내는 교육청이기에 수백 가지 고민 중, 알곡을 선별하여 11가지로 추려 담았다.

영양제가 될 만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농어촌 유학까지 있으니 논에 흩뿌려진 낱알들을 경북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함께 봐주시길.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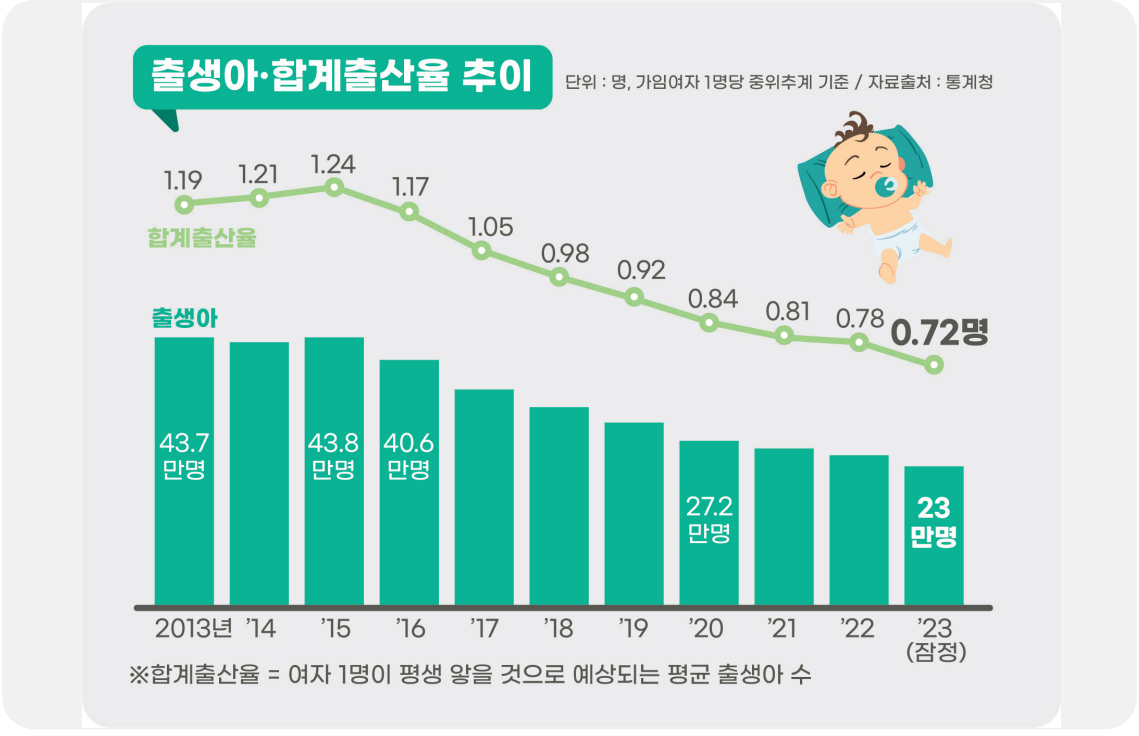
Part
02
진단
In Education

①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로 보는 경북교육의 방향
② 작은학교,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
③ 지역을 바꾸는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발전특구
④ 음악중점학교, 지역과 함께 예술 꽃을 피우다
⑤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미래과학자의 꿈
⑥ 지역을 살리는 교과 중점 중학교
⑦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경북온라인학교
⑧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캠퍼스, 경북형 통합운영학교
⑨ 농산어촌과 도시, 배움을 잇다,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⑩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⑪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⑫ 작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강원 농어촌유학

학령 인구 감소, 10년 후

01 경북의 학교를 상상하다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장 **장 계 영**



“더 센 놈이 온다”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문을 닫았었다. 학교 교육이 집에서 모니터로 이루어졌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었다.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거의 돌아왔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도 되돌아오지 못할 문제가 학교에 들이닥치고 있다. 학령 인구의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 2017년 40만 명, 2020

년 30만 명 선이 무너져 2023년에는 229,971명이 태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52년 20만 명 아래로 태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3년 2,784,000명이던 초등학생은 2024년 2,495,005명으로 10.4% 줄었다. 현재의 출생아 수를 토대로 보면 2029년에는 1,729,805명으로 2013년 대비 38.9%로 감소 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 (2024~2029년)

(단위 : 명) 출처 : 통계청

전국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계	**5,131,218**	**5,016,128**	**4,833,026**	**4,655,267**	**4,483,013**	**4,275,022**
초등	**2,481,248**	**2,329,381**	**2,194,987**	**2,041,781**	**1,870,580**	**1,729,805**
초1	347,950	319,935	290,686	271,282	258,447	244,965
초2	385,034	346,229	318,421	289,363	270,129	257,402
초3	428,911	385,094	346,325	318,599	289,608	270,414
초4	423,926	429,112	385,330	346,596	318,932	289,960
초5	424,435	424,181	429,519	385,772	347,028	319,401
초6	470,992	424,830	424,706	430,169	386,436	347,663
중학	**1,336,387**	**1,375,902**	**1,345,867**	**1,313,522**	**1,273,927**	**1,236,400**
중1	456,478	469,466	423,666	423,816	429,383	385,848
중2	452,477	455,134	468,185	422,592	422,847	428,508
중3	427,432	451,302	454,016	467,114	421,697	422,044
고등	**1,313,583**	**1,310,845**	**1,292,172**	**1,299,964**	**1,338,506**	**1,308,817**
고1	444,692	425,675	449,366	452,206	465,177	419,997
고2	458,768	434,498	415,968	439,132	441,935	454,657
고3	410,123	450,672	426,838	408,626	431,394	434,163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영유아가 많고 소규모인 어린이집이었고, 유치원의 폐원 역시 이어지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보육 통계에 따르면 2013년 52,448곳에서 2023년 37,395곳으로 28.7% 감소하였다. 이중 어린이집은 43,770곳에서 28,954곳으로, 유치원은 8,678곳에서 8,441곳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중 1곳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시도별 초 · 중등 폐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137개 학교가 폐교했다. 이중 초등학교가 101개교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경북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5개교, 총 20개교로 강원 22개교 다음으로 많았다.

2017년 2월 폐교된 성주 가천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는 157개교로 2022년 121개교에서 23% 늘었다.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는 전북이 34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4개교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신입생이 0명이거나 1명인 경북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56개교로 전체 초등학교 468개교 중 12%이다.

10년 후
경북의 학교

경상북도의 학령 인구 변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학교 수의 급감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경북의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북의 출생아 수는 9,967명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북의 시군별 출생아 수를 보면 5년 전에 비해 36%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북 시군별 출생아 수

(단위 : 명) 출처 : 경상북도청 통계DB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포항시	3,047	2,670	2,418	2,189	2,151	2,026
경주시	1,228	1,099	1,085	1,047	970	958
김천시	984	856	804	778	714	644
안동시	919	843	718	720	640	582
구미시	3,245	2,848	2,630	2,354	2,142	1,809
영주시	496	375	346	358	338	304
영천시	483	636	542	517	517	451
상주시	451	429	354	315	326	294
문경시	292	312	324	293	265	213
경산시	1,749	1,566	1,297	1,357	1,256	1,128
의성군	228	241	215	165	176	174
청송군	81	110	75	81	74	75
영양군	62	74	48	40	31	29
영덕군	142	176	139	92	110	78
청도군	141	126	109	92	111	104
고령군	130	110	92	97	87	86
성주군	242	210	183	172	153	147
칠곡군	819	637	455	446	414	323
예천군	326	346	330	299	272	280
봉화군	143	132	98	72	66	60
울진군	250	238	205	195	193	176
울릉군	33	40	28	24	18	26
계(경상북도)	**15,491**	**14,074**	**12,495**	**11,703**	**11,024**	**9,967**

2024년 경북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17,203명이다. 시군별 출생아 수를 토대로 2029학년도 초등학교 학생 수를 추정하면 74,754명으로 36% 감소한다. 경북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실제 2029년 초등학생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를 보면 영천, 성주, 의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학교 수나 학급 수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다. 포항, 경산, 구미와 같은 곳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도 학급 수가 줄어드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심각한 곳은 중소도시인 칠곡, 영주, 경주, 안동, 상주, 문경, 김천 등으로 많은 수의 학교가 폐교하거나 분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감소율은 20~30%대를 보인다. 성주와 의성의 경우 출생아 수의 합이 현재 초등학생 수보다 많지만, 학령기에 인근 대도시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입학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생의 감소는 연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 고등학교는 3년이므로 실제 학생 수의 감소는 초등학교보다 빠르게 체감할 것이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앞으로 10년 후 2034년 경상북도의 인구 수는 2,479,227명으로 나타나 2023년 2,554,324명보다 3%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학령기인 만 5세부터 만 14세까지 인구는 2023년 201,332명에서 2034년 102,868명으로 49%가 줄어든다. 통계를 분석하면 고령 인구의 증가로 향후 10년간 경상북도의 인구 수는 3% 줄어들지만 학령기 아동은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북 시군별 출생아 수

(단위 : 명) 출처 : 경상북도청 통계DB

순	시군	2024년	2029년	감소 수	감소율
1	칠곡군	5,926	3,094	-2,832	-47.8
2	영주시	3,953	2,217	-1,736	-43.9
3	포항시	25,573	14,501	-11,072	-43.3
4	구미시	26,048	15,028	-11,020	-42.3
5	경주시	10,481	6,387	-4,094	-39.1
6	안동시	7,234	4,422	-2,812	-38.9
7	경산시	12,771	8,353	-4,418	-34.6
8	상주시	3,175	2,169	-1,006	-31.7
9	영양군	395	284	-111	-28.1
10	고령군	833	602	-231	-27.7
11	문경시	2,350	1,699	-651	-27.7
12	김천시	6,272	4,780	-1,492	-23.8
13	울진군	1,639	1,257	-382	-23.3
14	봉화군	724	571	-153	-21.1
15	청도군	862	683	-179	-20.8
16	영덕군	930	737	-193	-20.8
17	울릉군	209	169	-40	-19.1
18	예천군	2,217	1,853	-364	-16.4
19	청송군	527	496	-31	-5.9
20	영천시	3,078	3,146	68	2.2
21	성주군	914	1,107	193	21.1
22	의성군	912	1,199	287	31.5
계		**117,023**	**74,754**	**-42,269**	**-36.1**

경상북도의 학교 환경 변화

1) 학령 인구 주거지의 변화

2024년 3월 1일 자로 경주 의곡초 일부분교, 김천 봉계초 태화분교, 성주 초전초 봉소분교, 봉화 소천초 임기분교, 울진 기성초 사동분교, 울릉 천부초 현포분교가 추가로 폐교되었다. 올해는 6곳에 그쳤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경북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100개교(21.4%), 31~60명인 학교는 126개교(26.9%)이다. 이를 합치면 전체 초등학교 수 468개교 중 48.3%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학교이다. 전교생 30명 이하의 학교는 6~7년 후에는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아있더라도 학생 수 3~4명의 분교가 될 확률이 높다. 앞으로 출산율이 1.0 이상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상북도의 상황에서 결국 10년 후인 2034년, 지금 학교의 절반 정도가 폐교 또는 분교 지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를 미리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학령 인구의 감소가 주거지의 변화를 만들었다. 특히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외곽에 거주하던 젊은 세대가 고장의 중심지로 이주하는 현상을 보인다. 생계의 중요한 부분인 일자리, 교육, 의료, 행정, 문화 등이 중심지에 소재하고, 세원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중심지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 인구의 주거지가 고장의 외곽에서 중심지로, 군지역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인근 더 큰 도시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학령 인구의 주거지 변화는 지방의 외곽 지역부터 학교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처럼 고장의 중심지에서 통학으로 학생들을 데려와서 학교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2) 사립 중학교 폐교의 사회 문제화

정부는 학령 위기 감소에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학급 수를 줄이고, 결국 학교 수를 축소한다.'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크기와 규모를 줄이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사립 중, 고등학교 폐교는 사회 문제화될 염려가 있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시차를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폐교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6년제인 초등학교와 달리 3년제인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학급 수의 축소로 이어지는 기간이 짧고 교원 감축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학급 수 축소를 넘어 폐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립과 사립 교원 사이에는 첨예한 차이가 드러난다. 폐교의 공립 교원은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폐합

된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으로 전환된 적도 있지만 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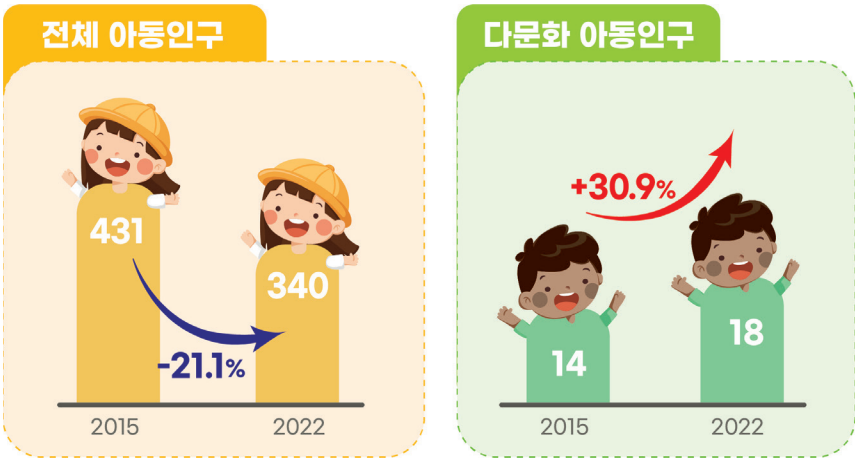
또한 초등학교는 적은 학생 수로도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 고등학교는 교과 교사제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면 운영이 어렵다. 공립은 지역 순환교사제로 그나마 부족한 교과 교사를 보충하며 버틸 수 있지만 사립의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 사립 중, 고등학교가 버틸 수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 역시 이미 30%에 가까워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장래 10년 이내에 군 단위의 사립 중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립 재단과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 교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학령 인구 감소가 낳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폐교의 기준과 지침을 미리 명확히 하고, 폐교 유휴 재산 활용 방안 및 사립 교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증가

KBS 시사기획 '창' 인구(3편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에 출연한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인구 저지선을 4,50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은 1.52명 이상, 이민자 비율이 15.8%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2021년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100년 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100만 명이다. 2,400만 명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매해 24만 명이 새롭게 이주해야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 · 외국인 인구 전망: 2020~2040년'에 따르면 이주 배경 인구 중 학령기 인구가 2030년이 되면 2020년에 비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북지방통계청에서 올해 9월 발표한 경상북도 아동 인구 · 가구 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경북 아동(만 18세 미만) 인구는 34만 명으로 2015년 대비 21.1% 감소(전국 18.3% 감소)하였으나, 이주 배경 아동 인구는 2015년 14,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30.9% 증가하였다. 이주 배경 아동 인구는 전체 아동 인구의 5.4%로 2015년보다 2.2% 증가하였다. 경북의 아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주 배경 아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경상북도 아동 인구 변화

출처 : 동북지방통계청(2024)

2020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통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1.6%(95,420명)인데 반해, 호주는 18.8%, 미국은 14.1%, 일본은 5.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부모의 낙인효과 염려나 까다로운 장애 판별 기준으로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장애를 갖고 있어도 지적능력(IQ)이 정상이면 특수교육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목 받는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품행장애(파괴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의 증상 포함)가 10~14세에서 3.6%, 15~19세에서 2.4%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품행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실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볼 때 학령 인구의 감소 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 경북교육을 준비하려면"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내외 대응 사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학령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역시 폐교가 증가하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립초 · 중학교의 적정 규모 적정 배치 방침'을 마련하여 규모와 통학거

리를 기준으로 통폐합을 진행하고 지원책를 제시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인 우타시나이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시의 총인구는 겨우 2,700명으로 2045년에는 813명으로 줄어들거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타시나이시 가쿠엔은 폐교 위기를 초 · 중 · 고등학교를 통합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1~9학년의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복식학급 편성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체험학습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도쿠시마현의 학교 교육 모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쿠시마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학교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7개 지역에서 체인 스쿨을 운영하였고 3개 지역에서 패키지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듀얼 스쿨의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체인 스쿨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소학교(초등학교에 해당)와 중학교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상호 활용하면서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반면 패키지 스쿨은 우타시니아시처럼 특정 부지 내에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와 소학교, 중학교를 배치하여 교육적 서비스를 일체화하여 교육 내용의 연계성과 충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체인 스쿨은 각각의 소규모 학교는 유지하되 행정 통합과 자원 공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패키지 스쿨은 급이 다른 학교를 모두 한 곳에 모은 형태이다. 듀얼 스쿨은 다른 지역 학생들이 별도의 전입 신고 없이 2주에서 한 달간 도쿠시마현으로 이주해 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기업인 '아와에', '미래의 학교'등이 새로운 생활 형태로 제안하였고 이를 도쿠시마현 교육위원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강점을 담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강원도 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 농어촌 유학'을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에듀버스, 에듀택시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운영할 '충남 본보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충남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 중에서 무학년제, 마을 연계 교육

과정, 학교-학교급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 다양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의 대응 방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통합 학교,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등의 경북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운영 형태는 지정보다는 공모에 의한 선정, 자율 운영으로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어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의 학령 인구 감소세와 지역의 실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 소멸 대응 필수 기관으로 소규모 학교 적정화와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단체에서도 교육청만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사례처럼 학령 인구의 분포와 변화,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체인 스쿨과 같은 행정통합 학교나 특성화된 유-초-중-고 통합학교와 같은 경북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들고 적용 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구가 적음에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군지역의 경우, 기숙 형태의 거점형 학교와 통학 형태의 지점형 학교 모델을 만들고 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립 중, 고등학교의 통폐합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급 교원 자격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령 인구의 감소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곳은 사립 중, 고등학교이다. 사립학교의 존폐는 재단의 재산권, 교원의 지위와 관련이 있어 사립 재단의 통폐합이나 관련 법령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학교급 통합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경북에서 운영하는 초, 중 통합학교는 관리자 1인만 2개 학교급을 겸임하고 교사 간 연계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재정, 공문 등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통합의 의미가 부족한 편이다. 이런 형

태의 학교급 통합이나 거점형 학교는 실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급 통합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 즉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하고, 학교급이 달라도 교사들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등교사의 중등교원 교과 자격 취득, 중등교사의 초등 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정주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 소규모 학교를 추진해야 한다.

학령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 연계 학교는 기존의 마을 학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은 지역화된 교육이었다. 즉 지역에서 배우고, 배움의 결과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체제의 지역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목적에 덧붙여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학습 공동체를 통해 자라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지역사회 모임과 협력하고 연대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대하고 정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가꾸거나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지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경남 창녕의 성산중학교는 학교 인근의 우포늪을 활용하여 생태교육을 교육과정에 넣어 전국 최초로 생태교육 중심 특성화 중학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성산지역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IB 거점 학교로 만들어 특성화하였다. 경북에도 산림과학고, 원자력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특성화 학교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역민에 대한 입학 비율만 일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하여 특성화 거점 학교로 선정하고,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의 인사, 편제, 교육과정에 있어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만들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특성화된 전문적 소규모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 단체의 역할을 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북의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이주 배경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 학생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의 인지 장애 중심의 판별 기준이 품행 장애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늘어날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다양한 세대 구성의 형태가 늘어나 상담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역시 늘어날 것이다.

한편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와 학급 수로 인해 교원은 과원이 될 확률이 높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수를 줄이는 방식의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 학력 지원이나 이중 언어가 가능한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며, 특수교육, 상담과 복지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이를 담당할 교사도 추가되어야 한다. 교과 교육만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별 학생 지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0년 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후 경상북도의 인구 수는 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학령 인구 수는 50%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의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기대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인구를 다시 늘이는 것이고, 하나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인구를 늘이는 정책은 지역민에 대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타시도에서 전출을 유인하거나 해외에서 이주민을 받는 정책 등일 것이다. 이 정책은 교육청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교육청은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장래 인구 추계로

볼 때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10년 후를 내다보고 출생아 수, 학령 인구 감소가 많은 지역, 분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통합 및 특성화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울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행정적 통계에 의한 학교 폐교나 학급 감축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인구 정책은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어쩌면 50년 후를 바라보며 경북교육의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이미숙 · 김진숙 · 이수정 · 조기희 · 김미식(2020).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경북교육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0-5

도쿠시만현 홈페이지(검색 2024. 11.)

통계청, 장래 인구 통계 추이(검색 2024. 11.)

동북지방통계청, 경상북도 아동 인구 · 가구 특성 분석 자료(검색 2024. 11.)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본 통계(검색 2024. 11.)

경상북도교육청, 2024년 각급학교 일람표(검색 2024. 11.)

작은학교,

02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서 윤 정**

들어가며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경북의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과반을 차지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60명 이하 작은 학교도 올 4월 기준 47.8%에 이릅니다. 늘어가는 작은 학교, 중앙 부처의 교사 정원 감축, 줄고 있는 교육재정 등의 문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북처럼 작은 학교가 많고 또 급격히 늘어가는 지역에서의 작은 학교 소멸은, 조금의 비약을 더하자면 공교육의 소멸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 찾아가는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목표로 특색프로그램을 발굴을 지원해 주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큰 학교 학생이 작은학교로 이사 없이 전학할 수 있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우수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 작은학교를 교육감이 인증해 주는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 학교 간, 도시-농촌 간에 교육과정과 방과후활동을 함께 운영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그 사례입니다. 또, 올해부터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도-농 이음교실', 중등교육과에서는 '따로 또 같이 소규모학교 연합 교육과정 공동운영'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작은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여러 부서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답니다. 올 2월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작은학교라 칭하고 작은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작은학교가 필요해요!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이 그 예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다양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학교복합시설'은 그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과 지역 어른들의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이 되고, 사랑방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학교에서 자라나는 들꽃 같은 아이들

혹자는 작은학교 아이들은 사회성과 협동성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작은학교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학생 수가 많은 과밀 학급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교과와 연계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물론, 오케스트라, 다도 체험, 공예, 승마, 골프, 드론 조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런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로, 저마다의 향을 가진 '들꽃'들처럼 자신만의 향과 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란 아이들, 학교복합시설화로 지역 어른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동성이 과연 낮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환경이기에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을 뿐이에요!

줄을 서서 찾는 교육맛집?!

유명 맛집은 아무리 멀어도 손님이 찾아와 줄을 서는 것처럼,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좋다면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학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올해만 600 여명의 학생이 자유학구제를 통해 작은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이는 경북의 작은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또, 전국 15개교의 우수 학교를 선정하는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경북에서만 3개교(안동 녹전초, 봉화 봉성초, 경주 양북초중)가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고, 지난 5년간 매년 3교 이상이 꾸준히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서 총 17개 학교 선정,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답니다! 이는 열정적인 선생님과 큰 꿈을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는 지역주민…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이룬 결과랍니다.

작은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래쪽 QR코드를 찍고, 작은학교에서 살아 가는 여러분(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 누구든!)의 생생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작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물론, 우리 학교 자랑 등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경북교육청이 두 귀를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지역을 바꾸는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03 교육발전특구

경북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홍 상 준**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시책 사업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돌봄 서비스 확충,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권 13개 지역(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에는 연간 약 30억 원의 재정 지원과 지역별 운영 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 적용이 추진되며, 3년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 혁신, 자율형공립고2.0,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고, 성장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교육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지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음악중점학교, 지역과 함께

04 예술 꽃을 피우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안 희 범**

음악중점학교

경북 구미에 위치한 광평중학교는 2020년 음악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일반학급 6학급, 음악중점학급 6학급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북 유일의 음악중점학교이다.

음악중점학급은 음악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며 한 가지 악기를 전공으로 정하여 연주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기별 연습실, 앙상블실, 마스터클래스실, 오케스트라 합주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속에서 음악이론 및 심화된 음악 교육을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악기별 우수한 전문 강사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예술 공동체 및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연주회, 지역연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민과 일상적 문화 예술을 나누며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음악중점학교는 이러한 상황에도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차별화된 창의·융합형 인재을 양성하기 위해 음악중점학교에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05 미래 과학자의 꿈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한 수 용**

과학중점학교

경북 일반고 중에는 '과학중점학교'라는 곳이 있다. 일반고를 진학한 학생 중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과학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과학중점학교는 경북도내에 총 11개의 학교가 있으며, '과학중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과학중점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2학년부터 과학, 수학, 그리고 정보 과목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창의융합적인 미래 인재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STEAM 교육, 과제연구 활동, 과학 동아리 운영, 학생 연합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첨단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실험과 연구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탐구 대회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자신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교간 연합 캠프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별 실험실과 2개 이상의 수학실을 갖추어 학생들의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첨단 기기 확충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학생들의 첨단 연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도 미래 과학 인재를 희망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06 # 교과 중점 중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 혜 경**

교과 중점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각각 17명과 37명 정도인 작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칠곡군 내 지천면과 동명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매년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와 인접하고 있어 대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자 학교, 칠곡교육지원청, 칠곡군청, 경상북도교육청이 모여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학교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회도 가지며 학교를 교과 중점 학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2023년 9월 도내 최초로 교과 중점 학교로 지정되고 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시작될 교과 중점 학교 운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과 중점 중학교는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2024년 올해는 운영의 첫해입니다.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는 교과 중점 중학교로서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중학교는 'AI 중점'으로, 동명중학교는 '글로벌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 편성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학기활동(주제 탐색 활동) 및 방과후 학교, 학교 행사 등 다양한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중점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실

및 특별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점 교과의 심도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교사 컨설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교사 공동체 협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로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가 살아나 지역도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07 경북온라인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손 기 화**

온라인학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과목개설에 대한 부담,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학생과 교사 수가 적어 여러 개의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 및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교·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학교가 많아 온라인학교가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개별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온라인학교에 주문해 과목을 개설하는 주문형 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특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 희망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는 지정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경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1년간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2024년 시범 운영 결과 1학기에 64개 강좌 6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학기에는 68개 강좌 8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 115개 강좌, 1021명의 학생이 신청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경북온라인학교의 특화 교육과정에는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의 과목,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위한 △환경과 인간 생활 △문화 다양성의 이해 △환경 등의 과목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경북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수업을 위해 경산지역의 유휴공간에 온·오프라인 강의실과 기반 시설 등 총 10개실의 규모로 학교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실력있는 교·강사들이 배치되어 깊이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식 개교를 통해 진로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캠퍼스,

08 경북형 통합운영학교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장학사 **채 수 진**

경북형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목적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연계 운영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정의와 유형

유연한 학교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인력·시설 등 교육자원을 연계·통합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를 통합운영학교라고 한다.

통합 방식	내용	
학교급별	초·중 통합운영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학교시설 (위치)	연계형	통합 대상 학교의 위치가 근거리에 있는 경우,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
	통합형	1개 학교 이상의 시설을 폐쇄한 후 중심학교에 통합하여 운영
	신·이설형	개발지구 신설 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구축 후 개교하거나 통합운영 대상학교를 다른 급의 학교로 이전하여 연계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구축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별 통합 방식에 따라 초·중 통합운영, 중·고 통합운영, 초·중·고 통합운영으로 나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시설(위치)에 따라 연계형, 통합형, 신·이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 현황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16교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가 다수이다.

이들 학교는 학교 간 자원 통합,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운용, 행정·사무의 통합,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적 운영, 무학년제나 블록타임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학생집단 구성의 통합,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 교육활동 전개 등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른 미래 대안형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초·중 (9교)	양북초·중 | 동로초·중 | 모서초·중 | 지품초·중 | 송라초·중 | 무을초·중 | 낙동동부초·낙동중 | 남정초·중 | 부남초·구천중
중·고 (7교)	가은중·고 | 동명중·고 | 모계중·고 | 성주여중·고 | 강구중·정보고 | 이서중·고 | 영덕여중·고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방안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 구안 및 일반화를 위해 지품초·중학교는 2021년~2023년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한 후 성과 발표회 및 담당자 협의회 등에서 운영 사례 공유를 하였으며, 기성초·중(통합운영학교는 아니지만 관련 주제로 정책 연구) 2022년~2024

년 3년간 교육부 요청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정책연구학교 운영 결과 및 각 학교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 및 배부하여 통합운영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하여 통합운영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과제 및 발전 방안

통합운영학교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 학교들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우수 운영 사례 연구와 공유, 행·재정적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교장 공모제·복수 자격증 소지자 우대·지역 장기 근속 교사 초빙 및 배치·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통합운영학교 교원인사 특별관리제 운영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통합운영학교 운영 업무를 단위 업무 층위가 아닌 관련 업무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교육균형 발전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어촌과 도시, 배움을 잇다

09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이 윤 성**

배움의 다리,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을 놓다**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학습 공간이 어우러진 작은 학교!!!
교실 가득 찬 학생들로 활기 넘치는 큰 학교!!!
이 두 공간을 잇는 특별한 배움의 다리가 있다. 바로 경북 도(都)-농(農) 이음 교실이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 무엇이 특별한가?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은 경북 내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한 공간과 환경을 활용한 학습의 장을 큰 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사업이다.

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 교육과정

서로 간의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은 도시 큰 학교 학생들과 토의·토론 수업 및 공동 수업(팀티칭)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큰 학교 학생들은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한 놀이 공간 및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농산어촌의 체육관 및 강당, 특별실 등 학교 안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놀이형, 환경 시설이나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생태형, 교수 학습 활동이나 교수 학습

자료, 스쿨버스, 급식실 등을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으로 운영된다.

나. 체험과 협력 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육

도시 아이들은 농산어촌의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경험하고, 농산어촌의 아이들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 자원을 접하며 견문을 넓힌다. 더불어 교과 속 지식이 아닌, 농산어촌의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체험 중심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수업 팀티칭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은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실현한다. 도시 큰 학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과 지역 특색을 살린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연계 체제를 통해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모색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더 나은 미래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잇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고자 한다. 농산어촌과 도시의 학교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계와 연결된 중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시작

10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김 미 정**

유학생 유입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주 전환기'를 거친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이입국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산업현장은 '노동력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지요. 국가 산업화를 위한 직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직업계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북이 이끄는 전국 최고의 중등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유학생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내 산업과 지역 정주 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지도하고 있어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한 결과, 70% 이상의 학생이 TOPIK 2급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대학 졸업요건인 4급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도 있어요.

유학생 유입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직업계고의 충원률 제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지한파 양성을 통한 국제 관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취업비자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교육부·법무부·고용노동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

며, 유학생 맞춤형 비자 제도가 만들어지리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김 정 희**

늘봄학교 운영 개요

늘봄학교

최근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

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지난 2023년 교육부 지정 시범교육청에 선정되어 도내 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선제적으로 하였으며, 2024년 1학기 180개 초등학교, 2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늘봄학교 현장 방문(안동강남초, 24. 3. 15.)

24년 12월 기준, 희망하는 초1학년 학생 83.9%가 양질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은 92.4%, 학부모는 92.5%가 만족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전담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내 늘봄지원센터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전담인력인 늘봄행정실무사를 1교　1명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을 112명 배치하여 늘봄지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공간, 예산, 프로그램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다같이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북 늘봄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12 강원 농어촌유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최 진 희**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납니다

Gangwon blooms when education blooms

전국적으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의 지역 중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중학교의 소규모학교(전교생 60명 이하)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방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학교에서는 적은 학생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더 나아가 학교 통폐합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시대를 마주한 강원의 위기를 교육으로 극복해 보고자 학령인구유입을 위한 강원 농어촌유학의 활

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도시의 학생과 학부모가 강원의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환경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찾아 유학 또는 정착함으로써 농어촌지역과 농어촌 학교의 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지원하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 귀촌 형태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강원 농어촌유학'"

- 뉴스 1 주관 '2024년 지방지킴대응 지자체 혁신 대상' 교육부분 대상 수상
- KTV '혁신이 답이다-꿈도 쑥쑥 마음도 쑥쑥 농어촌유학(2024. 10. 31. KTV 방송)
- 각종 언론매체 TV 및 라디오 뉴스

운영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대상
(강원자치도 외 전국 모든 지역)

운영형태 : 가족체류형, 농가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가족체류형
-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지자체·미을에서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형태
- 월 주거비 지원
- 가족이 함께 생활 (학부모 1인 이상 필수)

농가홈스테이형
- 학생이 학교 인근 **농가**에서 농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
- 월 체재비 지원
- 농가 구성원들이 제2의 가족이 되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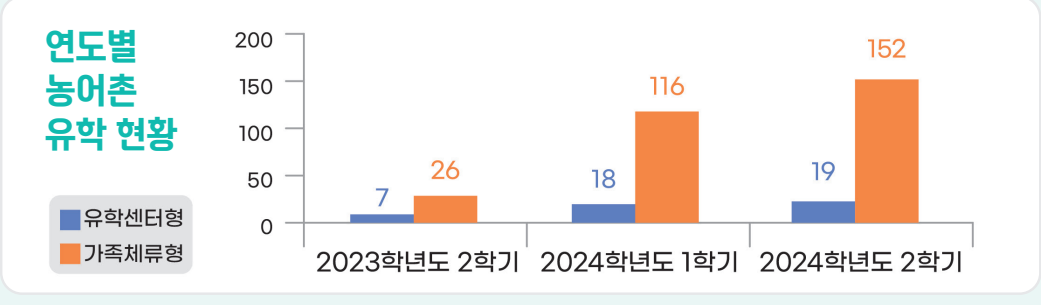
유학센터형
- 법인격을 갖춘 단체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센터 숙소**에서 생활하는 형태
- 월 체재비 지원
- 단체에 소속되어 또래와 함께하는 기숙형 생활

지원내용 : 농어촌유학생 주거비(=체류비) 지원
- 6개월 기본, 연장 희망 시 최대 1년 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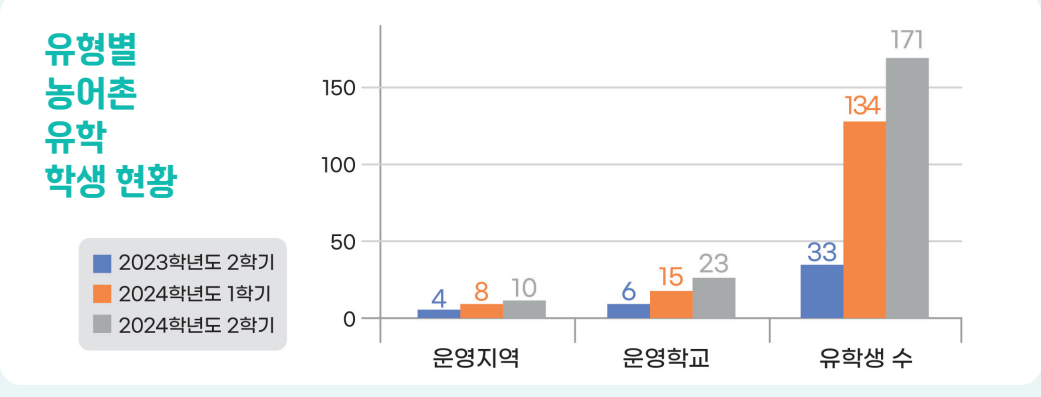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가족체류형	자녀수에 따라 지원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금액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농가홈스테이형	학생 1인당 월60만원				
유학센터형					

운영 현황

- 2023학년도 2학기 시범운영으로 시작
- 년도별 농어촌유학 현황
  - 2023학년도 2학기: 4개 지역 6개교 33명
  - 2024학년도 1학기: 8개 지역 15개교 134명
  - 2024학년도 2학기: 10개 지역 23개교 171명



- 유형별 농어촌유학 학생 현황



● 농어촌유학 연장율

- 2023학년도 2학기: 33명 중 27명 연장 신청(81.8%)
- 2024학년도 1학기: 1학기 신규모집 134명 중 119명 연장 신청(88.8%)
- 2024학년도 2학기: 2학기 신규모집 57명 중 50명 연장 신청(87.7%)
- 만족도조사 결과 교직원, 원주민 학생 및 학부모, 유학생 및 학부모모두 농어촌유학에 대한 만족도 높음

구분	교직원	유학생
만족도	86%	90%

유학생 학부모	재학생	재학생 학부모
89%	83%	73%

사업결과

● 농어촌 학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구 유입 효과

- 유학생과 유학생 학부모 중 1인 이상은 강원지역으로 전입 신고 필수
- 2024년 2학기 기준 가족체류형이 152명으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온 것을 감안했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유입 인구는 400명 정도로 추정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규모학교 학생 수 증가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학급당 학생 수 증가
- (양양 한남초) 전교생 50명 중 유학생이 26명
- (삼척 오저초) 전교생 20명 중 유학생이 11명
- (양양 남애초, 홍천 모곡초) 농어촌유학생 유입으로 2024. 9. 1.자 기준 1학급 증설, 복식학급 해소

● 재학생-유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제고 및 상호 성장 도모

●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 지역의 농가민박, 펜션 등을 활용한 유학생 주거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생 효과

- 유학생 가족에게 지원되는 주거비(월 60만원)로 지역의 농가민박, 펜션 등에 거주하며 월세 지급
- 유학생 가족이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강원 작은학교의 활기가 돌고 있다”

강원의 작은학교에 활기가 돋고 있다. 작은학교만의 강점을 살린 농어촌유학으로 조용하던 시골의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업 시간에는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로 작은학교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강원 농어촌유학은 이제 시행 초기의 사업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한 정주여건 마련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빈집 리모델링, 유학마을 조성 등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농어촌유학 가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 여건 개선 등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오도록” 내실 있는 강원 농어촌유학을 만들어갈 것이다.

Part 3

경북에서 자란다, 아이들이

정책은 무형의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맡을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살아숨쉰다.

Part 3 에서는 K-EDU 25 현장, 작은학교 운동장, 도농 이음 교실, 타국으로 유학 온 눈망울, 컴퓨터 너머 온라인학교, 따뜻한 늘봄학교, 선율따라 흐르는 중점학교까지 보물찾기 하듯 그 모습을 찾아 실었다. 그들은 속살거리며 이야기한다.

우리는 경북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리고 벌써 이만큼 자랐다고.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Part
03
함께하는 현장
Community

① K-EDU 경북교육 2025 - 현장 취재
- 현장 설문

② 나는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꾼다, 작은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③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다시 돌아올 봄날을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④ 해외 우수 유학생
-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 해외 우수 유학생 멘토를 하며
- 테물엔 아빠의 편지

⑤ 화면 너머의 배움, 그 가능성을 보다; 경북온라인학교에서의 1년

⑥ 늘 봄 햇살같이 따뜻한 학교

⑦ 음악중점학교
- 음표를 그리다
- 비올라에 빠져들다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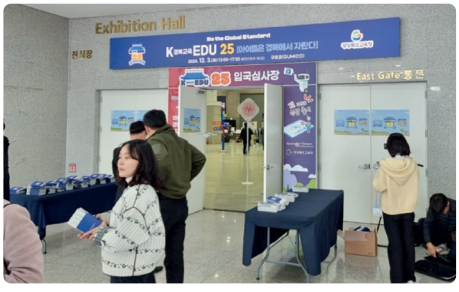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미래교육학부모 모니터단
명 수 향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성황리 개최

경북교육청은 12월 3일,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행사를 열고 '경북교육 2025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EDU 25, 경북교육의 비전을 담은 특별한 여정

▲ 그림1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QR체크



▲ 그림2 K-EDU25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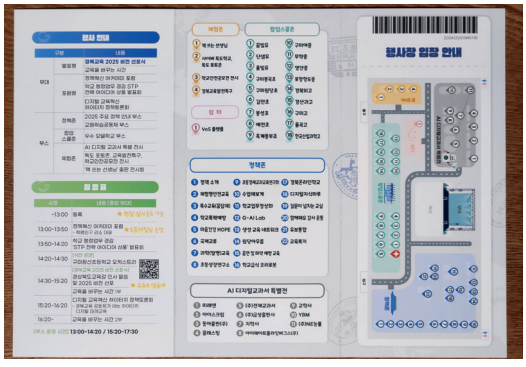
행사장의 입구는 공항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콘셉트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QR코드를 활용해 사전등록 확인을 마친 후, 발권을 하듯 줄을 지나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K-EDU 25 PASSPORT(여권)이라 적힌 안내문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듯한 설렘을 더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행사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정책 부스와 우수 사례 부스가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경북교육의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공항 여

행이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경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색다르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 그림3-1 여권느낌의 입장 안내문

▲ 그림3-2 입장 후 전경



◀ 그림4 행사장 입장 안내

K-EDU25 비전 선포식

경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방문객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전선포식 사회는 AI사회자가 맡았다.

▲ 그림5 K-EDU25에 참석한 모습

제2회 부총리배 전국 학교예술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대표 곡('The Phantom of the Opera', 'Think of Me')과 아바의 대표 곡('The Encounter', 'Melody', 'Dancing Queen') 등을 메들리로 연주했다.

▲ 그림6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⑦

⑧

⑨

⑩

▲ 그림7-10 공연 모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의 축사

▲ 그림11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AI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회에서도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식 시작을 알리는 레이저쇼가 진행되었다.

▲ 영상11-2 레이져쇼

경북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

▲ 그림12 경북하다

경북교육청이 2025 경북교육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AI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북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비전의 첫걸음은 인성교육이다. 나와 타인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은 모든 교육의 시작점이자 목표로 강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IB 교육 과정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작은 학교의 증가와 교사 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교육은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정주 학교 모델을 발전시켜 교육과 보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은 또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북하

다"라는 단어가 교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다.라는 의미로 전개될 수 있을만큼 세계에서 찾아오고 세계와 나누는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교육을 바꾸는 시간 - 1부

별 보러 가자 - 포항고등학교 교사 배준석

▲ 그림13 별 보러 가자

포항고등학교 지구과학교사 배준석은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과 과학적 경험을 확장하며 교육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접근을 선보였다. 천체관측과 원격 관측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고, 과학적 사고와 탐구의 즐거움을 심어주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으로 과학의 대중화와 교육의 확장을 실천했다. "별 보러 가자"는 그의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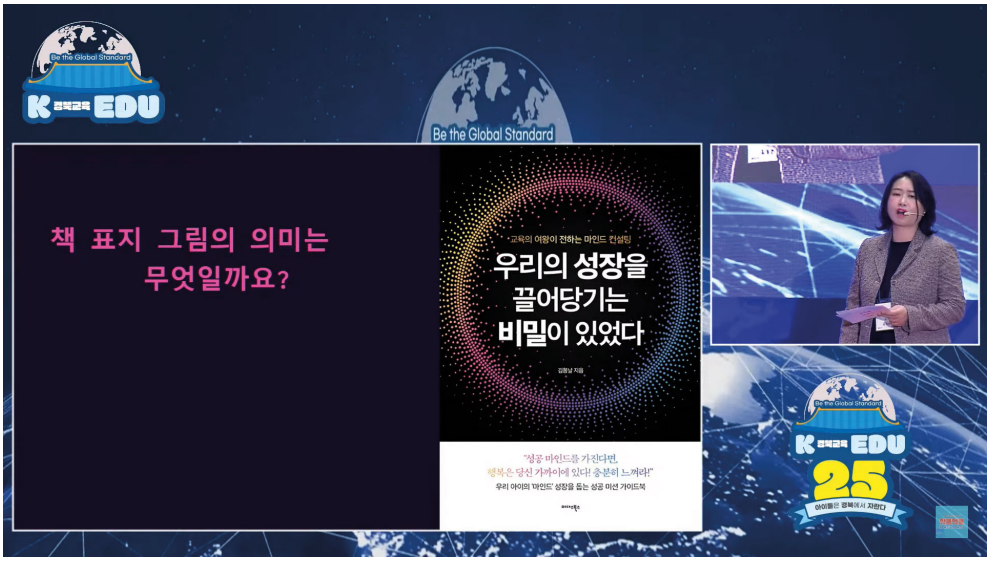
마을의 품에서 내가 피어나는 방법 -정책 연구교사 이은주

정책 연구 교사로서 구미 교육 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역민을 이어주는 미래교육 지구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움과 꿈을 키우고, 지역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설명하며 마을과 교육을 연결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 그림14 미래교육지구 발표

우리의 성장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있었다. -병곡초등학교 교사 김동현

강연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자녀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세 가지 핵심 비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그림15 '우리의 성장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있었다' 발표사진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

강연자는 성장의 첫 번째 비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했다. 그는 캐롤 드웩의 연구를 인용하며, 고정된 능력에 머무르는 고정 마인드셋과 달리, 도전과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실패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가 아이들의 성과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체험을 통한 성장

두 번째 비밀은"체험"이었다. 김 작가는 해외 체험 연수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경험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수 중 한 학생이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존감이 높아진 경험을 이야기한 사례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은 체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다”며 부모와 교사들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 마인드와 도전의 가치

마지막으로 그는 "성공 마인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강연자는 자신이 책 쓰기를 도전하며 느낀 성취감과 변화를 공유했다. 그는 매일 꾸준히 글을 쓰며 얻은 성공 경험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며, 아이들에게도 자신만의 고유한 성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각자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라.

김 작가는 강연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성장을 끌어당기는 비밀은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모든 청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각자의 방향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 그림16 뱃살잡아 백살까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포항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영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 "기름 잡는 국자"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이 발명품은 국물 요리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로, 실용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영 학생은 발표에서 기름 제거의 핵심 원리로 기름과 물의 밀도차와 사이펀 원리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자로는 약 11분이 소요되던 작업이 이 국자를 사용하면 단 2분 30초 만에 완료된다.

▲ 그림17 기름제거하는 영상 사진

발표 현장에서는 발명품의 성능을 직접 시연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 학생은 빨간 고추기름을 사용한 시연을 통해 기름과 맑은 물이 완벽히 분리되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었다. 특히 기름 제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모습은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영 학생은 “이 발명품은 곰탕, 삼계탕, 마라탕 등 국물 요리를 제공하는 체인점에서 인건비와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도구”라며, “현재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내년 6월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마친 후, 임종식 교육감과 조용진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전달했다.

▲ 그림18 꽃다발 전달식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전선포식을 넘어 교육청의 정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정책존, 팝업스쿨존, 체험존에 장학사와 담당 교사가 상주하며 참석자들이 경북 교육의 현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장은 무대를 비롯하여 2025 주요정책을 안내하는 "정책존", 우수 모델학교 부스

로 꾸려진 "팝업스쿨존", "AI디지털교과서 특별 전시부스"와 독도 포토존, 안전 공모전 전시부스, 책 쓰는 선생님 출판 전시회가 있는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19 행사장 이정표

체험존

연번	영역	내용	담당	
1	책 쓰는 선생님	- 책 쓰는 선생님 사업 운영 결과 전시 - 2024년 출간 예정 책 소개 리플릿 배부	유초등교육과	조성호
2	경북교육발전특구	- '지방교육발상지, K(경북)-에듀로 빛나다!' 전시:체험 부스 운영	미래교육정보과	홍상준
3	독도교육	- 독도 트릭아트 포토존 운영 -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및 메타버스 체험 부스 운영	학생생활과	박현경
4	안전교육	- 2024 학교 안전공모전 입상작 전시	교육안전과	박소영
5	AI 디지털 교과서 특별전	- 출판사별 교과서 시연	출판사 부스 20개 내외	

정책존

연번	영역	주제	담
1	주요 추진 정책	'경북교육 202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예산관
2	질문이 넘치는 교실	질문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3	유보통합	함께 걷는 걸음, 함께 가는 미래! 유보통합!	유초등교육과
4	함께해요 감사 운동	'함께해요, 감사운동' - 따뜻한 감사 챌린지	〃
5	경북온라인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맛집! 경북온라인학교	중등교육과
6	흡연 및 마약 예방 교육	유해약물 없는 따뜻한 경북교육 우리 함께 만들어요!	체육건강과
7	학교급식	학교급식 조리로봇 도입	〃
8	마음건강	마음건강 HOPE 프로젝트	학생생활과
9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예방교육	〃
10	디지털교육	디지털, SW-AI 교육	창의인재과
11	학교업무정상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더 가까이	미래교육정보과
12	교육복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행복교육지원과
13	국제교류	경상북도교육청 국제교류	〃
14	과학교육	경북 과학교육의 중심 플랫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
15	안전교육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 운영 K-EDU 안전구조대	경주·의성 안전체험관
16	특수교육	자립생활을 위한 꿈을 담고 채우는 꿈담채	상주교육지원청
17	교원학습공동체	배움을 향한 네트워크! 생성에서 상생으로!	생성 교육 네트워크
18		온무실 가이랩	G-AI Lab
19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래 교육	수업해보게
20		삶을 가꾸는 경제교육, 선도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경제교과교육연구회
21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초등성장연구소
22		교원학습공동체, 원당아우름!	구미원당초등학교

팝업스쿨존

연번	학교명	영역	주제
1	꿈빛유치원	디지털 놀이	'S.M.A.R.T 프로그램으로 담아보는 디지로그(Digi-log) 우리 놀이'
2	단샘유치원	유·초 이음교육	유, 초 이음교육으로 잇는 놀이 속 배움 팡팡!
3	율빛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통한 유아의 감성능력 신장
4	구미봉곡초등학교	질문이 넘치는 교실	질문선도학교 운영 사례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5	구미원당초등학교	경북희망학교	경북희망학교 6년의 배움 교육과정
6	길안초등학교	도·농 이음교실	캠퍼스 교실 팝업(POP-UP) 교육과정으로 도농 학습자 미래역량 신장
7	봉성초등학교	참 좋은 작은학교	봉성-GPT: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미래교육의 장
8	예천초등학교	디지털 역량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의 표준! B·O·D·A + 교육모델
9	옥계동부초등학교	〃	디지털 온 연구학교(A.I³.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역량 UP)
10	구미여자중학교	혁신교육	꿈을 키우는 혁신 교육: IB탐구, 디지털 리터러시, 지능형과학실ON, 인성, 자치의 조화
11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질문이 넘치는 교실	[질문하는 학교] 수업&활동 사례 나눔
12	영안중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사고 기반 창업가정신 교육
13	포항항도중학교	희망학교	경북희망학교&미술중점학교
14	경북외국어고등학교	국제교류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류
15	경산과학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및 대입전형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안내'
16	구미고등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미래 역량을 기르는 디지털·창의융합교육
17	율곡고등학교	도박 예방 교육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18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산림교육	K-EDU 25 위드 K-FOREST 25

◀ 첨부1.정책존 / 2.팝업스쿨존 / 3.체험존

경주,의성안전체험관 K-EDU안전구조대

▲ 영상20-1 안전구조대 실행

▲ 그림20-2 안전구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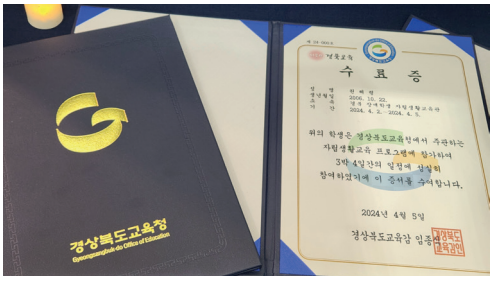
경주, 의성 안전체험관이 운영하는 'K-EDU 안전구조대' 부스에서는 혁신적인 안전교육 모바일 앱 'K-Edu 안전구조대'를 홍보다.

이 앱은 학교 현장에서 시뮬레이터나 특수 장비 없이도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보드게임 형식의 안전교육 콘텐츠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앱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 영역 미션, 협동을 통한 게임 진행, 사용자 수준에 따른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재대응, 약물 및 사이버 예방, 교통안전 등 10가지 미션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 앱은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K-Edu 안전구조대'를 검색하여 누구든지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게임 형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이 앱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21 꿈담채



▲ 그림22 수료증

작년(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인 '상주 꿈담채'는 경북 특수학교(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이 프로그램은 3박 4일 동안 최대 4명의 학생이 한 기수로 입소해 1인 1실에서 요리, 청소, 배달 앱을 활용한 식사 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 훈련을 제공하며, 이수 시 교육감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직업 연계 주택 입소 우선 선발 특전도 주어진다.

▲ 그림23 꿈담채 안내

꿈담채는 장애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독립적인 삶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의 마음성장을 지원합니다. - 경산교육지원청

▲ 그림24 마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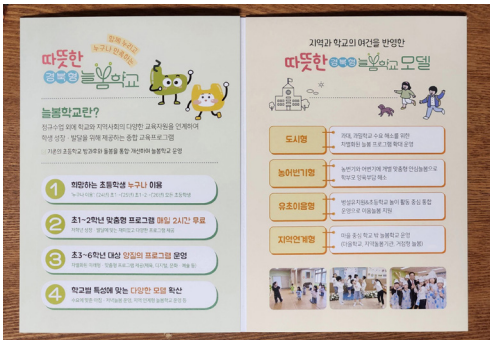
▲ 그림25 측정기기

마음성장 HOPE 정책 홍보부스에서는 뇌파와 맥파를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 클리닉, 마음 휴식을 위한 명상 체험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 및 브레인트레이닝 기기를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관계자는 "이 기기를 통해 학생의 불안, 산만함 등 10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력 훈련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복지로 102% 충전 - 행복교육지원과

▲ 그림26 교육복지로 102%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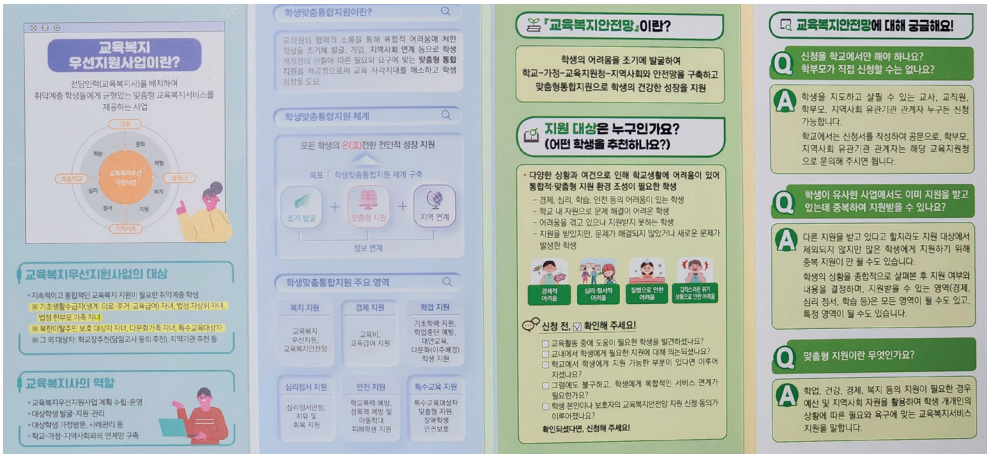
▲ 그림27 늘봄학교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가 운영하는 부스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다.

이 부스는 방과 후 학교, 사제동행 해외체험 '단디짝꿍', 늘봄 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생맞춤 통합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복지 사업을 총망라하여 전시했다.

늘봄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92개 학교가 아침 늘봄을, 70여 개 학교가 저녁 늘봄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매일 2시간 무상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그림28 수기집



▲ 그림29 복지정책

사제동행 해외체험 '단디짝꿍'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학생이 단단하게 하나로 짝꿍이

되어 함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기 극복 감동 성장 스토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직원 30명과 학생 30명이 1:1 단디짝꿍이 돼, 나눔·행복·성장의 폭을 넓히는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는다. 무대에서 '교육을 바꾸는 시간' 강의를 했던 김동현 선생님의 소심이와 해외 연수 사례를 '2024 단디짝꿍 동행' 수기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복지 사업들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흡연 NO! 마약 NO!,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체육건강과

▲ 그림30 마약 교육용 모형

체육건강과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 및 마약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포스터, 웹툰, 숏폼 등 다양한 우수작품 전시와 함께 금연 및 마약 체험관(다양한 모형)을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게 유해 약물의 심각성을 알렸다.

"청소년 흡연과 마약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약속했다.

이번 홍보부스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들에게 흡연예방 관심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함께가는 미래, 온(溫)맘미소 유보통합

◀ 그림31
유보통합 부스

유초등 교육과에서 운영한 '온맘미소 유보통합' 부스는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퀴즈를 제공했다. 퀴즈에 정답을 맞힌 이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지급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 그림32
질문이 넘치는 교실

질문이 넘치는 교실은 올해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수학교 7곳 중 경북 소재 학교 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자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된 문제를 탐구하며,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한다. 학생들은 더 이상 수동적 학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질문 공책 배포, 질문 방법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 추가 교사 연수도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과학교육의 길잡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 그림33
경북교육청과학원 부스

부스에는 2024년 주요 사업과 활동 성과 등을 자랑하는 자료들로 가득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탐구, 체험 중심의 맞춤형 과학교실 진행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의 인기도 자랑했다. 프로그램 신청 안내는 학교 공문이나 경상북도교육청과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

'펀(FUN) 업무, 더 경감, 효율이'가 함께하는 업무 경감 북-캠핑

북-캠핑을 테마로 업무 경감 성과를 공유하는 부스가 운영됐다. 캠핑 먹거리를 소재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통해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의 주요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북교육청은 업무 자동화와 AI 활용 사례를 통해 업무 경감 노력을 강화하며, 내년에는 학부모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림34-37 업무경감은 이렇게

팝업스쿨존

◀ 그림38 팝업스쿨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질문으로 성장하는 무학중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무학중학교는 '질문하는 학교' 운영 성과를 선보였다.무학중은 팝업스쿨존에서 질문 관련 행사와 TF팀 활동을 소개하고, 수업 및 활동 사례집을 전시했다. 학교는 2024학년도 동안 질문나무 심는 날, 인생질문 갖기 대회

◀ 그림39
무학중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명가 교육연구지원부장은 "K-EDU 25가 본교의 질문하는 환경 조성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 질문 중심 수업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그림40 영안중_시스템기반 창업가정신 교육

▲ 그림41 구미여중_인증제스탬프

▲ 그림42 예천초_BODA모델

▲ 그림43 봉성초GPT

삶이 있는 배움, 아우르며 함께 성장하는 경북희망학교 -원당초등학교

경북교육청은 2021년 공모를 통해 구미원당초등학교를 첫 경북희망학교로 선정했다. 경북희망학교는 학생 수용률이 낮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

해 인근 과대 학교의 교육 수요자를 유치하는 정책이다.

◀ 그림44
원당초_희망학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정된 원당초등학교는 2년 연속 매년 100명씩 학생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부스를 찾은 학부모들은 경북희망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25년 경북 IB관심학교 시작

경북교육청은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향후 3년간 후보학교를 거쳐 인증학교로 성장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3교 :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 중학교 5교 : 경덕중학교(안동), 도송중학교(구미), 동산여자중학교(영주), 청하중학교(포항), 화랑중학교(경주)
- 고등학교 2교 : 포항제철고등학교, 풍산고등학교(안동)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가 특징이다. 이런 IB교육을 2017년부터 연구해온 교사모임을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IB-K(경북형 IB)를 위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 초등성장연구소

◀ 그림45
초등성장연구소

경북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IB초등성장연구소'는 2017년부터 약 15명의 교사들이 매월 모여 IB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물로 '백워드 설계'와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주제로 한 교사 지침서를 출간했다. IB가 경북교육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된다.

구미 원당초, 교원학습공동체 '원당아우름' 활동 활발

◀ 그림46
원당아우름

구미 원당초등학교 교원학습공동체 '원당아우름'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학년별로 모여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질문 기반 수업'과 '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bit.ly/원당아우름)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교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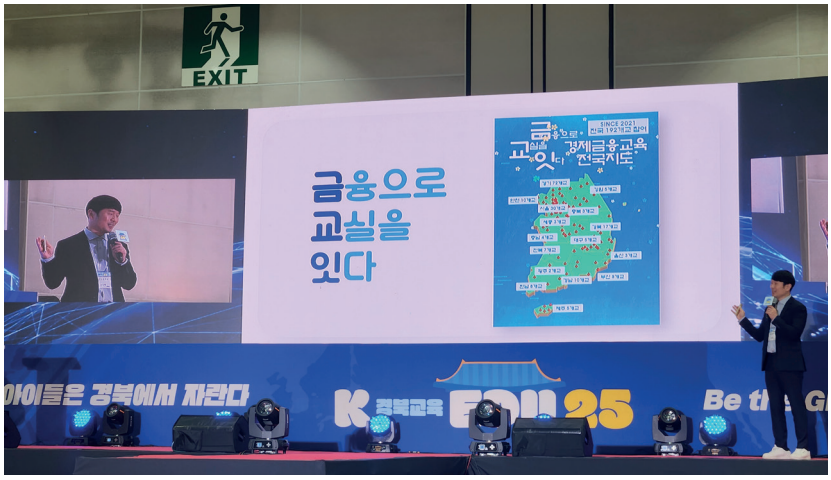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래교육 - 수업해보게

◀ 그림47-48
게이미피케이션

교원학습공동체 부스 중 하나인 '수업해보게'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수업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게임 요소를 수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금교잇'

교원학습공동체 경제금융교육연구회의 '금교잇'은 교실에서 금융 교육을 실천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상의 나라를 만들고, 자체 화폐를



▲ 그림49 금교잇 부스

▲ 그림50 금교잇활동지

통해 경제 활동을 경험하며, 실제 무역 체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문초등학교 교사 천상희는 금교잇의 핵심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다른 학교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은 교실에서 직접 화폐를 만들고 직업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의 창업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금교잇은 더 많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험존

교육발전특구 부스, 지역 교육과 정주의 미래를 제시

▲ 그림51 교육발전특구

▲ 그림52 교육발전특구 13개지역

교육발전특구 부스에서는 '지방교육발상지, K(경북)-에듀로 빛나다!'를 주제로 경북권 13개 교육발전특구에서 진행 중인 7대 주요 정책이 소개됐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시책 사업이다.

경북권 13개 교육발전특구 :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7대 주요 정책 : 유보통합,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학교복합시설 구축, 지·산·학 연계 교육혁신 체계 구축

부스에서는 이들 정책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특례 제도를 함께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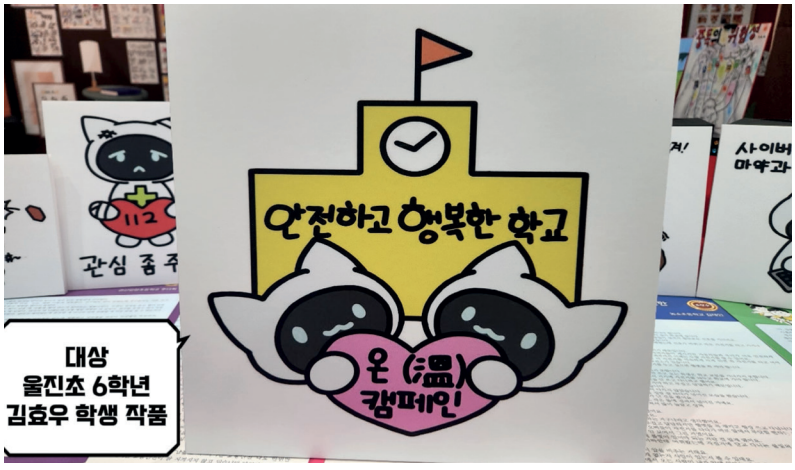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뒤,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며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부스는 지역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24 학교 안전공모전 입상작 전시

▲ 그림53-54 안전지키미

K-EDU 행사장에서 경북교육청이 운영한 '2024 학교 안전 공모전' 부스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생활안전, 폭력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공모전은 이모티콘, 포스터, 글짓기, 숏폼 영상 등 총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104명의 학생이 7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울진초등학교 6학년 김효우 학생의 이모티콘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 그림54-1
안전구조대_실행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온(溫)안전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제작된 학생들의 작품들은 창의적인 표현과 안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었으며, 관람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경상북도 교육청 사이버 독도 학교

◀ 그림55 사이버독도

학생생활과에서는 사이버 독도학교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방문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사이버 독도 학교의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책쓰는 선생님

2024년 '책쓰는 선생님'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책을 만나볼 수 있었다.

◀ 그림56 책 쓰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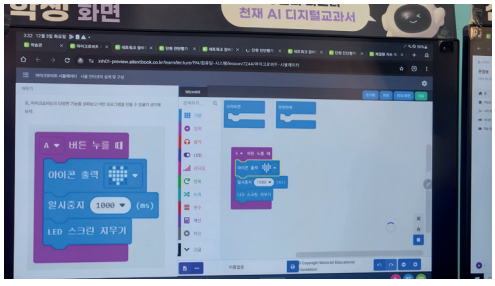
AI 디지털 교과서 특별전

AI디지털교과서 특별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이 부스에서는 미래앤, 아이스크림, 동아출판 등 총 11개 출판사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체험할 수있었다.방문객들은 선생

님 모드와 학생 모드를 비교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부터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57 3월에 도입될 디지털교과서를 학생모드와 선생님모드를 동시에 보이며 시연하는 모습

▲ 그림58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해보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 그림59 디지털교과서 (정보교과) 내에서 마이크로비트 코딩 하는 모습

교육을 바꾸는 시간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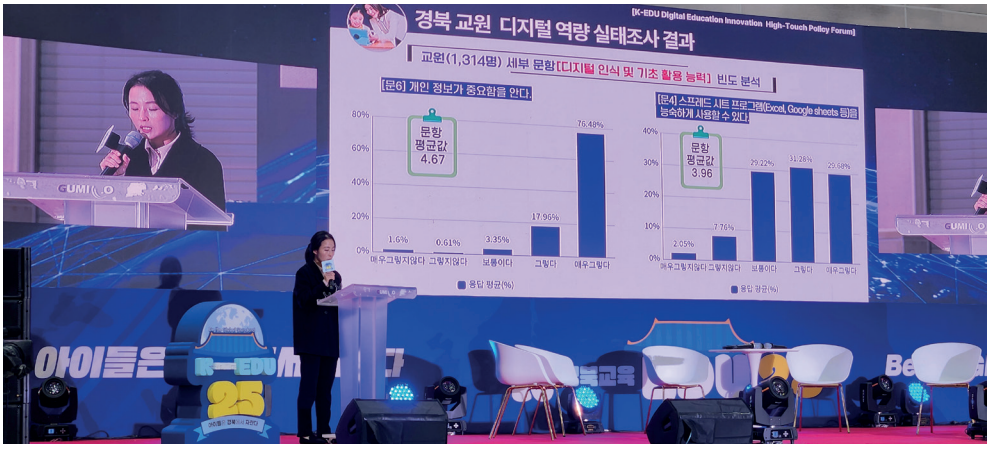
▲ 그림60 [SDG's 국제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 이서고등학교 교사 차원주

▲ 그림61 [따뜻한 교사연구회 'BioSEM'] -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교사 김가예

▲ 그림62 [금.교.잇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 다문초등학교 천상희

▲ 그림63 [원도심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포항항도중학교 교사 박미화

디지털교육혁신하이터치 정책토론회



▲ 그림64 정책연구발표: 경북교육 디지털 교육혁신 - 경산동부초등학교 교사 김미진

▲ 그림65 정책 토론: 경북교육 공동체 생각 나눔 토론

◀ 그림66
행사장 내 쉼터

◀ 그림67
K-EDU25 출국심사장(출구)

경북교육청의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내년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 행사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장학사들이 직접 참여해 경북교육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다양한 강연과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이 소개되었고, 정책존에서는 내년 교육의 변화와 비전이 상세히 전달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북교육의 방향성과 지역 교육의 가능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와 같은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교육 변화의 흐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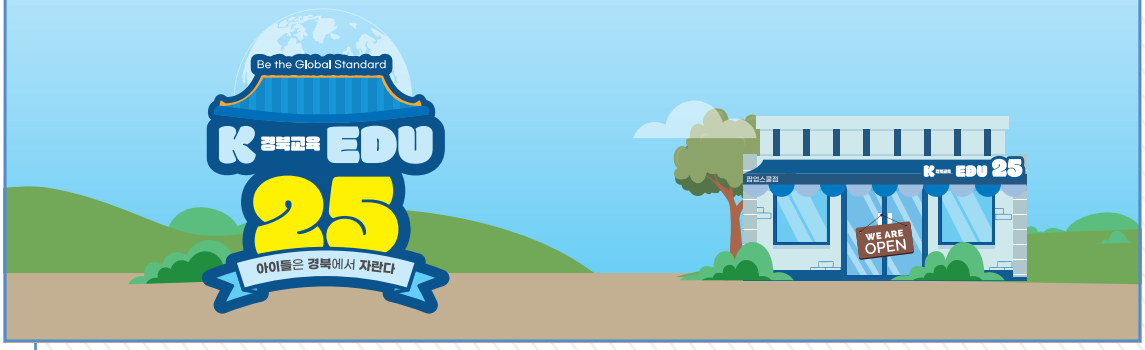
K-EDU(경북교육) 25에 바란다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주무관 **박 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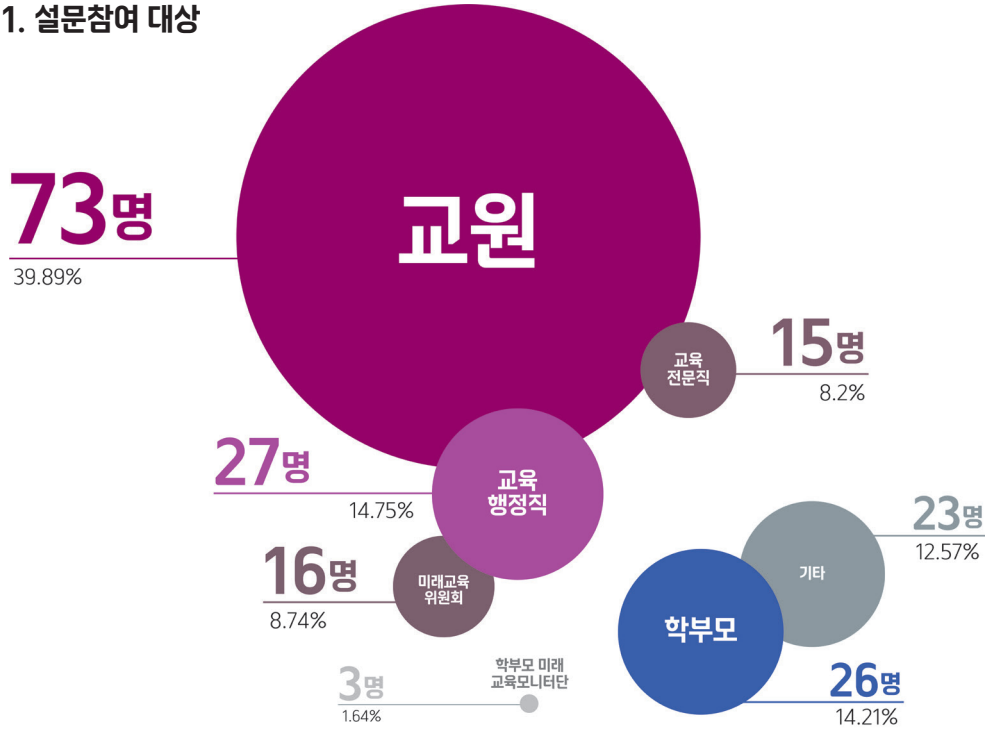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에서 지난 12월 3일 구미코에서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를 진행했다. 경북교육의 핵심비전과 주요정책 및 추진현황을 안내,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 경북교육계 관련자 2,00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 공유하였다. 본 행사는 3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섹션은 2025 비전선포식, 2섹션은 5주제에 13명의 발표자가 참여한 발표존, 3섹션은 45개 부스가 참여한 부스존 이었다.

K-EDU 25를 꼼꼼히 둘러본 18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문항은 크게 2가지로 K-EDU 25에 대한 행사전반에 대한 내용과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만족도 및 기대도에 대해서는 기대정도와 보다 자세한 의견은 주관식으로 받았다.

설문기간 | 2024. 12. 2.(화) 13:00~18:00 **설문대상 |** 경북교육구성원
방법 | 유레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인원 |** 183명
내용 | K-EDU 25 행사전반 및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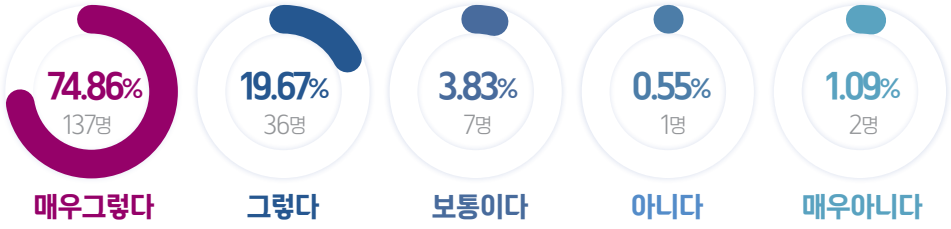


1. 설문참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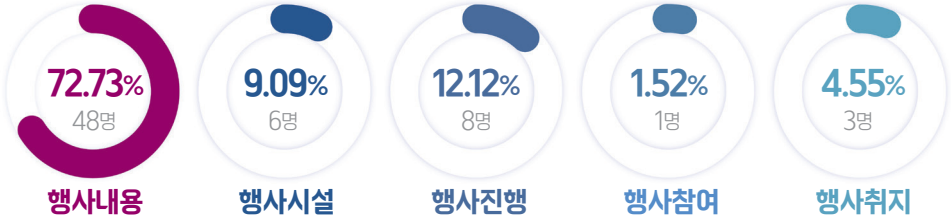


2. K-EDU 25 행사에 대한 문항

1) K-EDU 25 행사(발표, 포럼, 부스 등)에 대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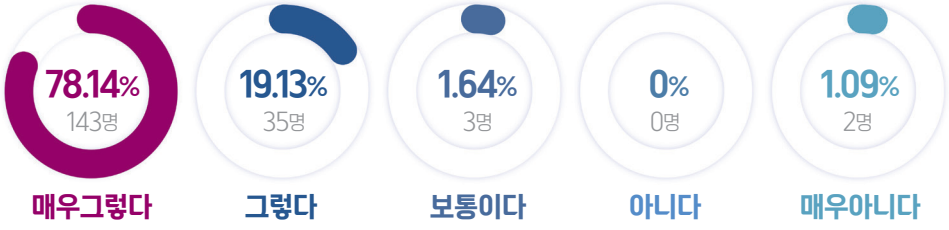
2) K-EDU 25 행사에 대한 의견(참여 후기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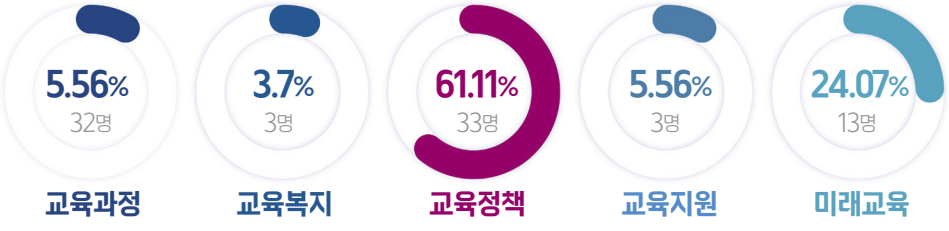
66명이 K-EDU 25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의견은 크게 행사내용. 행사시설, 행사진행, 행사참여, 행사취지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주요한 의견 위주로 살펴보면 행사내용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북교육의 방향과 미래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행사시설로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가 있었으며, 행사진행으로는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행사참여로는 AIDT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체험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아쉽다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사 취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표,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경북교육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취지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한 문항

1) 2025년에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정도



2) 2025년 경북교육에 바라는 점



54명이 2025년 경북교육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의견은 크게 교육과정, 교육복지, 교육정책, 교육지원, 미래교육 등 다섯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는데 주요한 의견 위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있기를 바랐고, 교육복지로는 어려운 가정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 학령초과자를 학생으로 인정하여 교사 및 교육비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정책으로는 지금의 정책에 만족하며 더 좋은 정책으로 지금의 교육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다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교육현장에서 탄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지원으로는 강압적이지 않은 업무 분위기와 행사를 줄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소규모 학교에의 관심과 지원, 인성교육의 중요성, 지역과 연계한 교육,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AI 디지털 교육 시스템 마련 및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4. 종합 분석

설문에는 교원이 가장 많이 참여해주었고, 교육행정직, 학부모, 미래교육위원회, 교육전문직 순으로 참여했다. K-EDU 25 행사에 대하여 98.36%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발표·부스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경북교육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사 취지가 좋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 제시,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큰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해서는 98.91%가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금의 정책은 유지하되 더 좋은 정책들로 교육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그 외에는 지역 및 소규모 학교에 맞는 교육을 바란다, AI 디지털 교육에 관한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K-EDU 25에서 만난 2,000여명의 교육 각계각층의 얼굴과 180여명의 목소리가 2025년 경북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많은 이의 힘을 보탠 단단하고 탄탄해진 경북교육으로 경북의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라나길, 나아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본인의 아이들을 경북에서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자 정체성이 되어주기를 바라본다.

02 나는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꾼다.

‘작은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월항초등학교
4학년 **이 지 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항초등학교 4학년 1반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대구에서 월항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다녔던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00명이 넘는 큰 학교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문화와 집단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이 유튜브에서 월항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시청하시고는 월항초등학교로 전학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월항초등학교로 전학 가기 위해 성주군 월항면에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저와 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지호야, 학교생활은 행복하니?”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하지요. 저는 정말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해요.”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항초등학교의 자랑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월항초등학교는 전교생 44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월항초등학교를 자랑하자면 첫째는 친구들, 동생들과 잘 어울리는 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간 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학년 구분 없이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축구나 배드민턴, 킨볼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며 즐겁게 어울립니다.

동생들은 형, 누나들을 잘 따르고 형, 누나들은 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중간 놀이 시간이 되면 함께 어울릴 생각에 정말 즐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숫자가 적어 함께 어울리다 보니 전교생 모두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교생 1,200명과 함께 어울리기도 서로의 이름을 모두 알기도 어렵지만, 전교생 44명이 있는 작은 학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강당과 운동장에서 함께 어울립니다.

둘째, 다양한 질문과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선생님

둘째, 월항초등학교는 저의 다양한 질문과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질문을 하면 칭찬해 줍니다. 우리 반은 아침마다 소리내어 책을 읽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1학기부터 지금까지 총 7권의 온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은 후 내용 간추리기 활동과 핵심 질문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빨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른 명의 학생이 한 반에 모여서 함께 공부했던 이전 초등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담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실 수 있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이 생기면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십니다.

셋째, 월항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 활동

셋째, 다양한 교육 활동과 체험프로그램

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질문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전에 제주도를 탐색하며 친구들과 질문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즐겁게 체험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주도 돌은 왜 어두운 색이며, 돌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 주상절리에 가 보았습니다. 검은색의 바위가 많았고, 돌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현무암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무암은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마그마가 지표에서 용암으로 흐르다 급격히 식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검은색 바위의 작은 구멍이 뚫린 현무암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체험학습도 질문과 함께 떠나니 제주도의 관광명소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은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실의 수가 많지 않아 유휴교실이 부족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많은 꿈을 품고 큰 꿈을 꿉니다. 저의 시처럼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작은 학교인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월항초등학교는 내 삶의 안식처이자 큰 꿈을 품게 하는 곳입니다.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며 글쓰기도 좋아하고 책 읽기도 좋아합니다. 또한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현재 작은 학교에서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의 재능을 찾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봄날을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도(都)-농(農)이음교실

길안초등학교
교사 **김 홍 철**

그린듯한 풍경의 시골학교... 하지만

길안초등학교는 안동 동쪽 끝에 위치한 전교생 24명의 작은 학교이다. 학교 주변엔 길안천이 흐르고 학교 담벼락 옆에는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조금만 걸어가면 숲이 있고, 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가면 자그마한 길송분교장이 위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농촌에 위치한 시골학교이다. 아이들은 1년 내내 학년 구분 없이 어울려 놀고 학교 옆에 자리 잡은 길안천에서 골부리 잡기, 파리낚시, 통발 놓기 등 물놀이를 하고 여름마다 길송분교장으로 캠핑을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하늘의 별도 보는 등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학교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길안초 학생들에겐 교실이란 어떤 기억일까?

길안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실이란 두세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하던 넓지만 허전했던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쉬는 시간에 모두 같이 어울려 놀 때에는 활기가 넘치던 아이들이 교실만 들어서 수업을 하면 활기가 줄어든다. 한 반에 2명, 3명, 많으면 6명의 아이들이 6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더 이상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없는 것이다.

길안초 도농이음 교실을 만나다.

2023년 운영 되었던 강남초 학생들과의 공동수업에서 항상 밝고 말이 많던 여학생이 주눅이 들어 수업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던 모습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길안초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 속에서 어울려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처음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일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이음교실 연구학교를 망설임 없이 신청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길안초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와 더 많은 학생들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다시 돌아올 푸른 봄을 준비하다.

도농이음교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이다.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학교의 뛰어난 자연환경 및 유휴 교육공간을 공유하고 시골 학생들은 도시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농이음교실을 준비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세웠던 원칙은 바로 단편적이고 1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 속에 도농이음교실 활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시아이들을 하루 데려와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활동 속에 배움과 놀이가 함께하고, 학생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 서로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교 모두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겨울, 협력학교 선생님들과 길안초 교사 모두는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이음교육과정을 불어 넣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 속에 경험, 탐구, 공유, 나눔이라는 이음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과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과제호기심 Play	도전 actiOn	배움 Party	내일 sUPport
1학년	반려견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길안천 골부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가을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중한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우리조상들은 겨울에 어떤 전통 놀이를 즐겼을까?
2학년	봄 알록달록 색깔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길안천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우리조상들은 겨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3학년	공원을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단오 축제에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조상들은 어떤 놀이를 즐겼을까?	철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4학년	우리도 농사 일을 할 수 있을까?	학급소풍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우리 텃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	이웃과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5학년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살림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과가 가장 맛있을까?	우리조상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6학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보리차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환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푸른 봄을 맞이하다.”

봄부터 시골학교 학생들과 도시학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도농이음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 10차시씩 총 40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6월 20일(화) 여름프로그램으로 길안초등학교 6학년 6명의 학생들과 안동강남초 6학년 24명의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보리차를 만들 수 있을까?’ 란 주제로 도농이음 수업을 운영하였다. 아침부터 길안초등학교로 스쿨버스로 등교한 안동강남초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봄

프로그램으로 이미 얼굴을 익힌 길안초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늘 조용했던 교실은 간만에 아이들로 가득 차 북적거렸다. 잠시의 소란 후 아이들과 함께 사전학습으로 추수해온 보리이삭을 털며

세계 최고의 보리차를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모여 앉아 손으로, 발로 이삭을 털어내고, 털어낸 보리를 프라이팬에 덖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에 조용하던 길안초 학생들도 강남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평소에 5명의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놀 남학생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던 남학생도 강남초 남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신이 나 보였다.

“푸른 봄이 돌아 왔다.”

6학년 도농이음 수업이 끝나고 서시학교 학생들을 인솔해서 스쿨버스로 하교를 시키게 되었다. 돌아가는 강남초 학생들을 배웅하기 위해 6학년 학생들이 현관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문득 궁금해서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남학생이 크게 웃으면서 “쉬는 시간에 남자애들이랑 축구하는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씨익 웃었다. 그 대답을 들으니 도농이음활동 내내 즐거웠을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항상 학교에 울려 퍼지던 작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학교에 가득 퍼지고 있다. 길안에 다시금 봄이 돌아오고 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 **손 연 희**

선생님, 길안초 또 언제가요?

길안초에서 강남초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선 어김없이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길안초로 수업을 가기 전이나 후에 학생들은 항상 기대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농 이음 교실이 강남초 학생들에게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농촌 학교가 가진 독특한 공간 활용성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교실 공간이었습니다. 강남초 학생들은 28명이 한 교실을 사용하는 반면에 길안초에서는 같은 크기의 교실 공간을 6명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신기해했습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길안초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교실과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빽빽하던 교실을 벗어나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간이 조금 넓어졌을 뿐인데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갈등을 일으키던 학생도 공간적 여유에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길안초의 교정은 넓은 운동장과 텃밭,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학생들은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힘든 자연과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안천을 둘러보기도 하고 직접 나무를 심고, 사과를 따기도 하였습니다. 농촌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도시 학생들에게 전에 없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농 이음 교실은 농촌 학교의 풍부한 공간과 자연을 활용하여 도시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만나 소통하며 함께 수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도농 이음 교실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 학생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도농 이음 교실 통해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한국국제조리고 1학년
Enkhbayar Temuulen(테물엔)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영화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 있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서울푸드페스티벌" 이라는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찰 음식전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행사에 세계 각국의 미슐랭 셰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장래에 레스토랑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슐랭 셰프들을 보니 나도 미래에 저런 멋진 셰프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으로 풍기 인삼축제에 참가하여 콩국수와 미숫가루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전통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몽골과의 차이점을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특히 교육시스템, 음식 만드는 방법, 문화의 차이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약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지내보니 그러한 차이가 저의 한국 생활 적응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내보니 한국어를 잘 몰라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게 가장 힘들었고 유학 생활 처음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 감기몸살로 일주일 정도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 학생과 멘토 최영진 학생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부모님이 많이 그리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저는 유학 생활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토픽 3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노는 시간도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10월에 본 토픽 시험에서 3급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토픽 등급도 더 올리고 조리 자격증도 취득해서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비자를 획득하고 저의 전공을 살려서 좋은 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조리 및 제과제빵 기술을 몽골에도 가르쳐주고 전파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멘토를 하며

한국국제조리고
2학년 **최 영 진**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저는 처음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 학생과 함께 생활 하며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유학생 멘토 역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국적이 몽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몽골이란 나라에 대해 미리 공부해보며 학생들과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커져만 갔습니다.

3월에 개학을 하고 몽골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에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아리 시간에 서로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친구들이 몽골의 전통 요리인 “보즈”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 또한 한국의 요리인 김치를 소개하며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고 문화를 교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저희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은 한국 학교의 규칙과 생활 방식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처음 한국 학교에 적응하려는 몽골 친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업 방식, 교실 규칙, 급식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몽골 학생은 저에게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넓고 광활한 초원에서의 생활 방식이나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 등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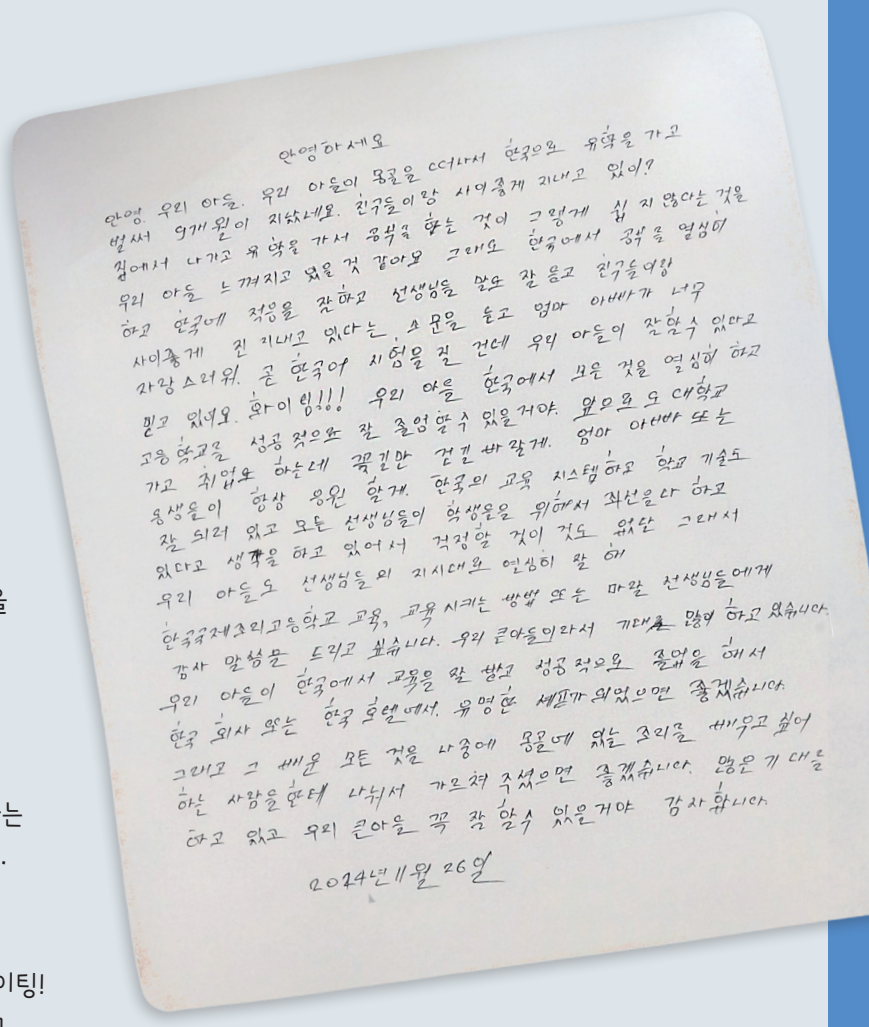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저는 한국과는 다른 몽골의 매력을 느끼며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단순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정을 쌓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몽골 친구에게 한국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 학교를 졸업 후에도 몽골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취직해서 조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보며 조용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활동하여 역동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몽골 친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졸업할 때까지 더 많은 추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유학생 프로젝트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것 같아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 아빠의 편지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몽골을 떠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집에서 나가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들 느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에 적응을 잘하고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곧 한국어 시험을 칠 건데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화이팅!!! 우리 아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졸업할 수 있을거야. 앞으로도 대학교
가고 취업도 하는데 꽃길만 걷길 바랄게. 엄마 아빠 또는
동생들이 항상 응원할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학교 기술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선생님들의 지시대로 열심히 잘 해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교육, 교육 시키는 방법 또는 마랄 선생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큰아들의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해서
한국 회사 또는 한국 호텔에서 유명한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모든 것을 나중에 몽골에 있는 조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 대를
하고 있고 우리 큰아들 꼭 잘 할수 있을거야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안녕,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몽골을 떠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집에서 나가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들 느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에 적응을 잘하고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곧 한국어 시험을 칠 건데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화이팅!
우리 아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졸업할 수 있을거야.
앞으로도 대학교 가고 취업도 하는데 꽃길만 걷길 바랄게. 엄마, 아빠 또는 동생들이 항상 응원할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학교 기술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선생님들의 지시대로 열심히 잘 해:)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교육, 교육 시키는 방법, 또 학교, 기술, 기숙사 등등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잘 키워 주신 학교 선생님들하고 외국은 유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신 김일동 원장님 또는 마랄 선생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큰아들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해서 한국 회사 또는 한국 호텔에서 유명한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모든 것을 나중에 몽골에 있는 조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서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큰아들 꼭 잘 할수 있을거야.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Enkhbayar Yandag

05

화면 너머의 배움, 그 가능성을 보다;

경북온라인학교에서의 1년

(가칭)경북온라인학교
교사 **이 다 겸**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쓴다는 말이 있다. 핵심을 간결하게 드러내야 멋진 글이 되겠지만, 그런 재주가 없어 장황하지만 살아있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로써 읽는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열어본다.

> **온라인학교? 애들 없으니 편하겠네.**

1년간 경북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경북 내 유일무이한 학교, 도내 누구도 근무경험이 없는 학교. 그런 학교의 시범 운영과 개교 준비를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다. 한편으로 그만큼 아이들과의 씨름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으시구나 싶기도 했다. 실제로 온라인학교에서는 급식소에서 뛰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을 무단으로 빠지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온라인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것을 고민한다. **'우리'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도내 모든'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야한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온라인학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과학을 예로 들면, 도내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선생님이 한명씩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7개교나 된다. 과학 I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는 잘 개설되지 않는다. 겸임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보충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는 있지만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공통문구만이 입력되는 문제가 있다. 사

실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큰 학교에서도 매우 적은 수요로 개설되지 못하고 폐강되는 과목들이 있어, 이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 자체교육과정을 대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과 외에 추가 수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고 진정한 선택권의 확대로 보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 또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대학에서 각 과목을 내실 있게 이수했다고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온라인학교에서는 가급적 일과 내 시간에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경북 전체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학생 수요를 분석하는 일에 다같이 매달리고도 최종 결과가 정리되면 마음이 늘 무겁다.

“아직 개교 전이면 수업은 언제부터?”

정식 개교 전이지만, 경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1, 2학기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했다. **1학기에는 497명이 이수했고, 2학기에는 732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먼저 개교를 한 타시·도와 견주어도 상당한 규모다. 온라인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이 많은 학생들과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만나고,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육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한다’는 말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시·도명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24. 2학기 수강인원(명)	487	1,500	450	169	178	253	**732**	257	340

온라인수업은 뭐가 달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매 수업 학생들이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다.** 자작자작을 활용한 작문, 망고툰으로 웹툰 창작, 미리캔버스를 이용한 광고포스터 제작, 캡컷으로 단편영화 제작, 클로바노트와 챗GPT를 활용한 토론 등이 올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주제였다. 또한 고시외 과목을 비롯하여 통상적으로 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주로 개설되다 보니,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매**

▼ 광고포스터 / 웹툰

우 높은 편이다. 학생들 자신이 희망한 과목이기 때문에 대체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 대한 질문도 활발하다. 다만, 교사용 지도서는커녕 검인정교과서조차 없는 과목이 많은 탓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 및 자료 개발에 투자해야 하지만, 입시 위주의 과목을 매년 반복해서 지도하던 생활에 지쳐 있던 터라 오히려 즐거웠다.

“벌써 1년.”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온라인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근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처음엔 낯설고 막막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John Dewey의 말이 떠올랐다. 학생들과 함께 화면 너머로 연결된 시간들은 단순한 수업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고민도 많았고,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통해 **‘교육은 정답을 쥐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남긴 흔적은 나의 가르침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경북온라인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기를 바라며,

06 늘 봄 햇살같이 따뜻한 학교

조마초등학교 늘봄학교
모니터단 **이 남 숙**

시골의 작은 학교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되는 시골의 작은 학교입니다. 아침에 거의 대다수 아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면 그대로 강당이나 천연 잔디 운동장에 모여 늘봄학교 체육활동을 합니다.

3월에 학부모 모니터링이 되어 학교에 가보니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슨 체육활동을 하는 건가. 뚱한 표정의 아이들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많은 아이가 마스크를 잘 벗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때의 웃고 떠들고 장난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서로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어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표정 없이 서로 신체를 부딪치며 하는 놀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실 늘봄학교 체육활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시작된 참관은 날마다 놀랍고,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신나고 즐거운 놀이 활동이 없습니다.

우리 조마초는 태권도 협회를 통해 추천받은 사범님께서 전문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시는데, 태권도의 품새를 기본으로 다지고, 매일 다른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체육 놀이가 있다는 것도 놀랐고, 현재 1년을 지나면서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 3월 많은 아이가 마스크를 끼고 놀이 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거의 마스크를 끼지 않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크게 웃으며 운동을 신나게 합니다. 한껏 예민해져 있던 아이들도 정해진 규칙 속에서 신체를 부딪치면서 밝은 표정을 나누고, 서로 협동도 하고, 건강한 선의의 경쟁도 하고, 팀플레이도 하면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해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일도 규칙 속에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보다 더 뿌듯하고 고맙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마초등학교의 놀이활동

특히 우리 조마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같이 놀이 활동을 하니, 한 가정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자녀이다 보니 어찌 됐든 내가 소중하고 내가 먼저이던 아이들에서, 우리가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어울려 도와가며 하는 활동이 더 재미있고 동생들, 누나, 형들이 서로 같이 웃으며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동화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아름반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하는데, 금요일은 두 팀으로 나눠 신나게 피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의 아웃이

되어 라인 밖으로 나가 있고, 6학년 덩치 큰 형에게 피구 공이 넘어갔습니다. 상대 팀에는 아름반에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한 남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만 맞추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손에 공을 쥔 6학년 형이 라인 건너 공을 그 아이에게 맞추지 않고, 손을 죽 뻗어 웃으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그때의 감동과 훔쳤던 눈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 덩치 크고 힘센 형이 내미는 그 손이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맙든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고 배워야 할 것은 저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날의 깊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

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 몸을 부딪치면서 규칙 속에서 배우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밝아진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스크조차 벗기를 주저하던 아이들이, 손이 닿는 것도 예민해하던 아이들이 늘봄학교의 놀이 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해지는 신체와 더불어 이 작고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찾아가는 모습에 말로 다할 수 없지만 너무 고맙고 정말 소중한 수업이었습니다!!!

조마초의 늘봄학교는 매일이 감동이고 감사하고 소중한 늘~봄같이...생기있고 따뜻한 햇살 같은 학교 입니다.

음표를 그리다

광평중학교 3학년
김 은 준(악장, 바이올린)

음악중점반에서 보낸 3년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악기 비전공자로 시작했지만, 그 사실은 저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를 읽는 것조차 낯설고, 주변 친구들의 뛰어난 실력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점차 음악의 즐거움과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음악 이론을 배우고, 합주 시간에는 협력과 조화를 경험하며, 실기 연습을 통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기연주회 였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여러 번 실수하고 좌절도 했지만, 무대에서 함께 연주를 마친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부족함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노력의 기쁨과 성장의 보람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을 돌아보니, 음악중점반에서의 경험은 음악 실력뿐만 아니라 나의 자신감, 인내심,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전공자로 시작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의 중요성을 배운 시간들이 제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광평중학교 음악중점반에서의 3년은 단순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넘어,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좌절스러웠지만,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노력과 인내, 협력의 가치는 앞으로도 제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음악중점반은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비올라에 빠져들다

광평중학교 2학년
안 시 연 (비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광평중학교 2학년 안시연입니다. 저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처음으로 비올라를 접하게 되었고, 5학년 때부터 비올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악기이지만, 그 따뜻한 중저음에 반해 이 악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비올라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악기이기에, 저는 비올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전공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을 즐겁고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딱 맞는 학교가 바로 광평중학교였습니다. 입학 전에 저는 '음악을 배우는 학교에서는 기본 과목을 덜 배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은 한문, 정보, 미술 등 다양한 과목을 그대로 배우면서, 그 중 음악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광평중학교에서는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과 음악 이론도 배울 수 있어서,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과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처음 도입된 "협연" 자리에 오디션을 통해 첫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고, 덕분에 음악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

고 있습니다.

광평중학교에 다니면서 비올라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졌고, 이제는 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비올라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저 안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광평중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적 기회들을 통해 음악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음악과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쉽고 즐겁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4

경북에서 머문다, 아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방안은 매우 간단하다. 학령인구를 증가시키면 된다. 학령인구, 즉 출생률을 높이든가 이주율을 높이든가.

이제 갓 소년·소녀 티를 벗은 아이들이 한국을 찾았다.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48명이, 2025년에는 70명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태어나고, 키우고, 자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머물러야 한다. 삶이 있어야 한다. 뜻한 바 있어 먼 길 마다않고 경북으로 찾아온 유학생을 머물게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아이들이 경북에서 어른이 되고, 다시 본인의 아이들을 키우며 머무길 바라며, 이 연구는 그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Part
04
연구
Academic

직업계고 : 해외 우수 유학생태 유입과 정착방안 연구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유입과 정착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찬주(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최창원(前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 / 김수경(평택대학교 교수)
조준형(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 이헌우(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

원문 바로가기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위탁하여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정책연구(위탁)입니다.

지면관계 상 요약본을 실으며,
원문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장 서론

경북지역 인구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지역 소재 기업체의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경북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포함) 유입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거의 모든 정책 및 선행연구들이 대학생(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에 직접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 유학생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 방안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비자 및 선행연구 고찰,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의 졸업 후 산업인력 수요 및 요구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의 유학 동기 및 요구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국내 학생의 교육적 효과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 인식과 요구 분석을 통하여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방안과 정

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 조사, 경북지역 산업체 담당자, 그리고 직업계고 구성원(교원, 학생)과 지역사회 인사(중학교 교사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 관련 전문가 협의회(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장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비자 및 선행 연구 고찰

1. 학력 조건으로 인한 비자 발급의 어려움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에는 취업 비자인 E 비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인 F 비자 등이 있으나, 최소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요건이 필수사항이어서,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이 졸업 후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2.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의 부재

대부분의 유학생 정책 및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우수한 유학생 선발을 위한 유학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홍보 방법(관광 안내 연계, 박람회 운영 등)을 통한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및 엄격한 선발 기준 설정과 공정한 절차로 질적 향상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지원(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한국 생활 적응 지원 등)과 졸업 이후 한국 정착을 위한 취업 연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유학생 정책이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을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시범사업과 연구들이 함께 진행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장
직업계고 유학생 졸업생 대상 (외국인) 인력 수요 및 요구 분석

1. 경북지역 기업체의 외국인 인력 고용 수요 현황

경북지역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외국인이 근로하는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이다. 경북지역 기업체 73.6%는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고용을 희망하였고, 전공 분야로 구분하면 기계·자동차 38,6%, 전기·전자 27.2%, 조리(제과제빵) 10.0%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경북지역 기업체의 직업계고 유학생 필요 역량

경북지역 기업체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인내력 및 직업윤리 등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담당자 면담에서도 유학생에게는 전공직무 능력도 필요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일·학습병행 기회 제공

경북지역 기업체는 유학생의 근무 기간 동안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경력개발을 위해 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설문 78.5%, 면담 모든 업체).

4장
직업계고 유학생 유학 동기 및 요구, 교육 실태 분석

1. 유학 동기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의 유학 선택 동기에 대한 동의도 분석 결과‘경력개발’항목 유학생 4.52점, 외국이 중학생 4.35점이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 ‘외국어 능력 향상’항목을 유학

생 18.4%, 외국인 중학생 2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직업계고 유학 선택 동기에 대한 동의도 분석 결과 유학생은'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아서' 4.42점, 외국인 중학생은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우수해서'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우수해서' 유학생 23.2%, 중학생 2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특히, 유학생 대상 면담에서는 유학 동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유리한 취업 조건과 높은 경제적 소득을 우선 이유로 응답하였고, 일·학습병행으로 경력개발을 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2. 교육과정 요구

직업계고 유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 내용'유학생 27.4%, 외국인 중학생 36.5%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주말, 방학)에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한국어 공부하기' 유학생 30.3%, 외국인 중학생 28.4%, '한국 문화 체험하기' 유학생 26.9%, 외국인 중학생 29.2%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유학생 대상 면담에서는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 참여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어 교육을 방과후 수업이나 주말, 방학 중에 운영하는 교육에서 운영하기를 요구하였다.

3. 유학 생활 어려움

직업계고 유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은 유학 생활의 어려움으로 유학생은 학습(3.46점), 중학생은 의사소통(3.26점) 항목이 가장 높았고, 문화적응 유학생 2.75점, 외국인 중학생 2.87점으로 두 집단 모두 가장 낮았다.
유학생 대상 면담에서는 유학생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수업 참여와 내용 이해를 어려워했고, 주말 식사비 등과 같은 생활비 지출

에 경제적인 부담이 높았다. 이외 종교, 공동 샤워 등과 같은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4. 졸업 후 희망 진로

직업계고 유학(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유학생 58.3%, 외국인 중학생 38.1%,'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유학생 33.3%, 외국인 중학생 42.6%로 나타났다. 즉, 유학생들은 취업보다 진학을 외국인 중학생들은 진학보자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유학생 면담(1)에서 면담자 모두는 졸업 후 한국의 기업에 취업(창업 포함)하여 정착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경제적 소득이 생기면 자신의 경력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진로 선택 요구가 높았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졸업 이후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수(임금)', '고용 안정성',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설문은 입학전 2024년 2월에 진행하였고, 면담은 한 학기가 지난 8월에 진행함.

5장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국내 학생의 교육적 효과 분석

1. 글로벌 역량 효과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입학 학교 8개교의 직업계고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입에 따른 글로벌 역량 효과를 측정하였다. 다만, 유학생 수가 학교별 평균 6명으로 적어서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각 영역별 측정 결과 타문화 수용(3.97점) > 글로벌 이해(3.90점) > 글로벌 교류(3.75점) > 글로벌 취업역량(3.74점) 순으로 높게 나왔다. 세부 항목에서는 글로벌 교류 영역의 '외국인과의 거부감(만남, 교류) 해소 도움 정도(4.03점)', 타문화

수용 영역의 '타문화 사람들에 대한 태도(존중, 배려) 함양 도움 정도(4.00점)'가 4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2. 변인에 따른 글로벌 역량 효과

글로벌 역량의 4개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외국어 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 높았다. 그리고, 2개(글로벌 교류, 글로벌 이해) 영역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들이 높게 나왔다.

6장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1. 경제적 효과 추정 분석 도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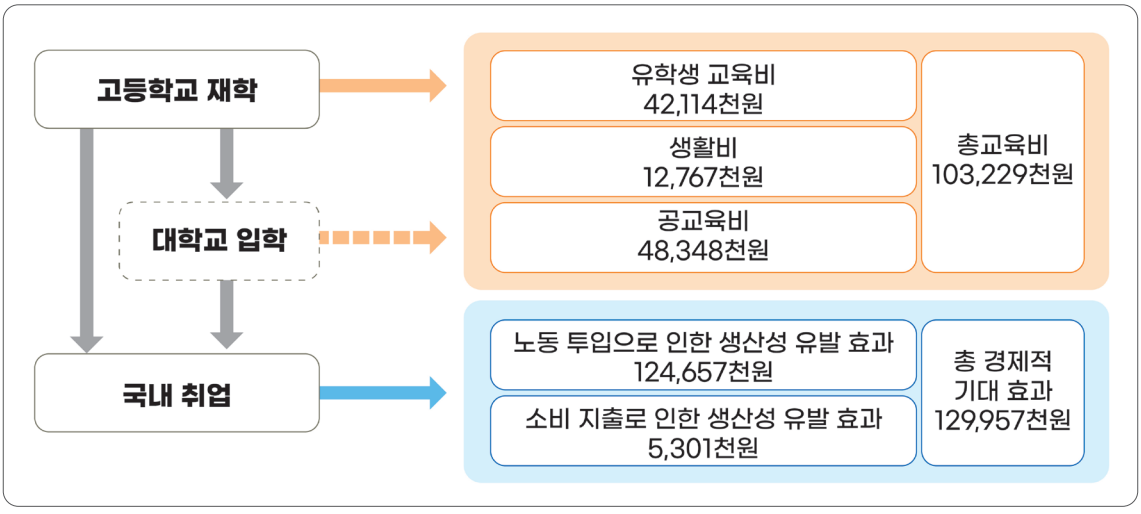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분석 항목은 투입에 해당하는 유학 기간 교육비와 산출에 해당하는 졸업 이후의 경제적 기대 효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교육비 투입 비용은 '유학생 교육비' + '생활비' + '공교육비'이고, 경제적 기대 효과 비용은 '노동 투입으로 인한 생산성 유발' + '소비지출로 인한 생산성 유발' 이다.

2.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직업계고 유학생을 위한 교육비 투입 비용은 3년간 103,229천원(유학생 교육비 42,114천원, 생활비 12,767원, 공교육비 48,348원)이고, 경제적 기대 효과 비용은 1년간 129,957천원(노동투입의 경제적 효과 124,657천원, 소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5,301천원)이다. 유학생 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에 취업하여 1년 이상 정착을 하게 되면 3년간의 유학(교육)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차 년도 이후에는 그 비용은 늘어나

지 않을거라 본다.

즉, 유학생의 졸업 후 정착기간이 늘어날수록, 유학생 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7장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과 정착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1. 유학생 정책 인식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가 알고 있는 비율은 약 91%, 67%로 나타났고,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은 비율은 76%, 88%로 나왔다. 한편,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직업계고 교원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높아서(37.5%)', '한국인 학생의 역차별 우려(32.1%)'가 높았고, 지역사회 인사는 '한국인 학생의 역차별 우려(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유학생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의 기대 효과는 사회·경제 분야에서 3.70점, 3.72점, 그리고 교육분야에

서 3.81점, 3.88점으로 나왔다. 직업계고 교원은 공립보다 사립에서 더 기대하였고, 지역사회 인사는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기대하였다.

3. 유학생 비용 지원 방안

직업계고 유학생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의 응답은'한국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이 63.9%, 50.7%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은 17.7%, 36.0%로 나왔다. 또한'유학생 자신이 전액 부담'에서는 15.3%, 9.3%로 나왔는데, 경북지역 교원과 지역사회 주민은 가능하면 유학생 지원 비용은 한국 학생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4. 유학생 교육의 어려움

경북 직업계고 교원은 유학생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사소통(35.7%) > 방과후 생활지도(22.6%) > 문화적 차이(17.5%) 이고,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전담 인력 지원(45.5%)'과 '교육 시설 및 예산 지원(31.6%)'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은 유학생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방과후(주말, 방학 등) 시간에 유학생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8장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언

1. 체계적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유학생 졸업 후 한국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학 전, 유학 중, 유학 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 방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계	주요 지원 내용
유학 전	• **유학 정책 안내 및 홍보** - 유학 정책과 유학생 선발 등 안내 및 홍보 - 학교별 안내와 동시에 정부(관광공사 지원), 지자체 지원 연계 • **유학생 선발 및 사전 교육**
유학 중	• **유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 - 일반 교육 :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과정 - 유학생 전용 교육 :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등(방과후 수업 : 방과후, 방학, 주말 등) • **유학생 한국 유학 적응 지원**
유학 후	• **유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및 지원 시스템** • **유학생 한국 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

▲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단계적 지원 방안 체계(안)

2.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유학생 졸업 이후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 개선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하는 경로는 취업과 대학 진학 2가지이다. 이 중에서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 비자(E 계열)나 지역특화비자(F 계열) 발급은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요약하면 유학생이 직업계고 졸업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더라도 E계열 및 F계열에서 요구하는 학력 기준 또는 취업 직종 범위(제조업)의 한정 그리고 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비자 발급 기준에서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예: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인증 등), 학력 제한 기준은 삭제하거나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두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E 계열 중에서 특정 활동(E-7) 취업 관련 비자를 살펴보면, 이 비자에서 제시하는 직종 중에서 E-7-2 ~ E-7-4에 해당하는 직종 대부분은 국내 직업계고를 졸업하면 충분한 직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력 기준으로 전문학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E 계열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살펴보면, 이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기준에 지역이나 기업 기준 등은 어느 정도 발급 가능성이 있지만, 이 비자에서 제시하는 직종은 현재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직종의 범위를 제조업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F 계열 중에서 지역특화비자(F-7) 비자를 살펴보면, 이 비자에서 제시하는 학력 기준은 전문학사 이상이고, 이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 조건 1인당 GNI 70%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계고 졸업생의 초임 임금 수준(약 2,500만원)을 고려한다면, 기준 금액 3,000만원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제시하거나, 학력 제한을 직무 수행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유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하여, 유학생의 보호자(동거인)에 대한 비자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방문동거비자(F-1) 기준을 완화하여 일시적 또는 단기적(예: 유학생 유학 기간)으로 허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유학생 관련 전담부서 및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생활 지원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인력을 교육청과 학교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청 전담 인력 필요

교육청에서는 유학생 정책을 계획하고 운영 및 단위학교와 소통하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모니터링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학생의 경북지역 기업체 취업과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산업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② 취업지원센터 전담 및 지원 인력 필요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유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나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관은 취업률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취업 지원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졌지만,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과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가적인 업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학교 내 추가 인력 배치 필요

단위학교에서는 유학생 선발, 사전 교육 운영,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교육, 방과후(주말, 방학 포함) 생활지도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에는 교직원 부재로 인해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에서 유학생을 방과후와 주말, 방학 중에 관리할 사감과 같은 역할을 수행 가능한 인력 배치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리고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이 업무에 대한 난이도,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원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④ 일과 시간 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방과후(주말, 방학 포함)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매주와 매월 단위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이 업무에 대한 난이도,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을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학생 업무 담당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수당, 가산점) 제공을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유학생 산업체 현장학습(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을 고용이나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현장실습 학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원활한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를 위해서는 유학 기간과 졸업 이후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경북 직업계고 졸업 후 6개월 ~ 1년 동안 구직 비자 발급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직업계고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경북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북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업무 내용, 급여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과 같은 통합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체 정보를 탐색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준비, 서류 준비, 면접 준비 등과 같은 종합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향울

2024년 겨울호
Vol. 08

발행일 2024. 12.
발간등록번호 2024-43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기획예산관 박귀훈
편집주간 기획예산관 장학관 정기효
편집담당 기획예산관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16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주식회사맹그라미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